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0호 2025년 04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더 나은 가족상담서비스 위해 노력해요” 가족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21일 센터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의 개념 이해, 중재 기법 및 면접·교섭의 실재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가족상담사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이혼가정 상담과 면접·교섭 장면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담 개입을 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기사 26면>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중고교생도 경기도의 무료 학습코칭 ‘1318온코칭’ 참여해요~”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학습자 8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첫 운영을 시작한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 동일 연령대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1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개월 동안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 지원을 총 9회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주 1회 학습에서 주 2회까지 확대해 더욱 심층적인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습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AI학습진단 평가 및 학습진단검사를 거쳐 수준별 맞춤형 EBS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는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학습진단평가를 통한 개인 학습 수준 파악 ▲EBS 교재,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1:1 온라인 학습코칭 9회 제공(OT 1회 포함) ▲진로 진학 동기부여를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추후 별도 안내 예

정) 등이다. 학습코치는 경기도와 EBS가 선별한 우수 학습코치로 배정된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는 대학 탐방,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318온코칭’ 누리집(1318study.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 누리집 상단의 신청하기-학습코칭지원을 선택한 뒤 ‘2025년 1기 학습자 모집’을 클릭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대상 확인’을 누르면 된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읍·면 지역 거주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올해 학습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3월 학생 모집 후 5월부터 본격적인 학습코

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1기부터 5기까지 운영되며, 각 기수당 8백 명씩 총 4천 명의 청소년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1318온코칭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문 학습코치와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흥미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318온코칭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318온코칭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응답 인원의 86.1%가 긍정했으며, ‘자녀의 시험준비, 내신관리,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에는 90.3%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의 1544-9936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중국어(Chinese) 中文 3, 23, 34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3, 24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4, 17, 2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3, 23 영어(English) 6, 17, 21, 36 일본어(Japanese) 日本語 33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5, 8, 12, 19, 29, 31 나의 학습 My Study 7, 11, 12, 26 보건 Health 8, 14, 18, 36 외국인주민 28 도서관 Library 3, 10 교육 Education 1 출입국 Immigration 3, 6, 33 이주배경청소년 4 비자 Visa 13, 34 행정 Administration 21 의료지원 Medical Support 23, 24, 36 장학금 Scholarship 25 복지 Welfare 4 통계 Data 9, 13, 17



경기도 이주배경 주민 사회통합 위해 함께 노력해요!

김동규 경기도의원, 보고회 참석...“이주배경 가족 적극 지원할 것”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1,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한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적응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작은연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2024년에 ‘이주배경주민’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대학교 인지언어연구실 김효은 연구원이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이주 배경 아동의 학업 및 사회·정서적 적응 탐구」 결과를, ▲단국대학교 김민선 교수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개선방안」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규 의원은 “제 지역구인 안산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뜻 깊은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를 통해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다. 사회서비스원과 연구진,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이주민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한, 우리 말과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배경 가족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이주배경 주민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2년 경기도에는 751,507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주배경 주민의 돌봄과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지난 26일, 고향마을 복지관에서 기부받은 식료품을 사할린 이주민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지은 기자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은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끄는 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내년까지 31개 시군 29만여 세대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총 379km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379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원, 안성시 공도읍 소신두마를 등 47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9만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31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143억 원을 투입해 210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원 등 291곳 20만 5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169km를 추가로 설

치, 여주시 교동 여주세종지구 일원 등 183곳 8만 5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경기도는 총 29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뉴스 → 공고·입법

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한층 도민들의 정주 여건과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말 기준 84.1%로 도 단위에서 가장 높지만 도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정 아동 이중언어교육 인기! 수원다가, 2025년 상반기 이중언어교육 개강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상반기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을 개강했다.

이번에 개강한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은 영어반 1개, 베트남어반 2개, 중국어반 4개 총 7개 반이 운영되며, 총 103명이 참석했다. 수업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의 모습에서 자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1교시는 각반에서 레벨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생 수준을 판단하여 어느 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 및 조율할 수 있었다. 2교시는 수업규칙, 수업 안내, 자기소개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수업 진행 중 한 학부모는 “센터 덕분에

이번에 이중언어교육을 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라며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나라의 문화도 함께 접하며 글로벌 자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상반기 이중언어교육은 영어반, 베트남어 A반, B반, 중국어 A1반, A2반, B반, HSK반 총 7개 반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 1회, 총 16회기 진행된다. 하반기 이중언어교육은 오는 8월 17일 개강할 예정이다.

하반기 다문화 이중언어교육 모집 공고는 센터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现在入境韩国时需要在网上提交“外国人入境申请书” 法务部实施“电子入境申报制度”

法务部宣布，为了方便有计划入境韩国的外国人在入境审查时提交入境申报单，已实施了“电子入境申报制度”，外国人可以通过在线（电子）方式提交入境申报书。

*为什么要实施电子入境申报制度?：目前，想要进入韩国的外国人需要填写纸质入境申报书，并在入境审查时直接提交给入境审查员。入境前没有提前提交的方式，必须在抵达机场后手写填写，不方便。

此外，入境审查员需要核对提交的纸质入境申报书上的信息，并在入境审查时逐一扫描，这增加了入境审查的时间。

为了消除这些不便，法务部去年开始开发电子入境申报系统，并于今年2月24日实施了该制度。

*谁需要进行电子入境申报?：入境申报的对象主要是计划短期停留（90天以下）的外国游客。此外，计划长期停留并且尚未在韩国完成外国人登记的外国人，必须在机场和港口进行入境申报。需要注意的是，①持有有效电子旅行许可（K-ETA）者，②已完成外国人登记的外国人（包括永久居民和已进行居住申报的人），③持有团体（电子）签证者，④航空公司机组人员等，无需提交入境申报书（包括电子入境申报书）。在此期间，纸质入境申报书和电子入境申报书可以并行使用。

*如何提交电子入境申报书?：可以通过电脑或智能手机访问电子入境申报官网（www.e-arrivalcard.go.kr）提交。申报书可以在入境前3天到抵达韩国并接受入境审查之前随时提交。

如果提交后的72小时内未入境，已提交的电子入境申报书将作废。

电子入境申报官网菜单分为“个人电子入境申报”和“团体电子入境申报”，可以根据申报人数选择相应的填写方式。

特别是，使用智能手机拍摄护照上显示姓名、出生日期、护照号码等信息的页面后，电子入境申报官网会自动填写相关信息。电子入境申报官网提供韩语、英语、中文、日语、泰语、越南语、俄语版本。

*如何确认电子入境申报是否成功?：申报者将收到一封确认邮件，其中包含电子入境申报书的发放号码和有效截止时间。

提前在线提交入境申报书后，您无需在入境时填写申报书，这样可以减少入境审查的等待时间，缓解机场的拥堵状况，为外国人提供更便捷的服务。

同时，由于申报内容是电子化输入和收集的，信息的准确性和工作效率得到了提高，外国人入境者信息也能够更加系统地管理。

〈한글 기사 33면, 인터넷에서 과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과파야스토리

도서관 주간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

수원 17개 도서관, 강의 작가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

2025년도 수원시도서관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안내			
01 도서관 강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도서관	
수원,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길	4.12.(토)	선정	
책이가 속속 과학이해하기	4.12.(토)	황사대산	
물리학의 6인 6색 작가의 만남	4.12.(토)	홍재실	
읽어달라! 책 : 학습능력 키우는 읽기 전략	4.17.(목)	서수원	
영어 통찰력으로 만나는 미술	4.12~4.19.(토~토)	한림	
미래엔과 함께	4.12.(토)	반드네	
책으로 신나게 놀자	4.12.(토)		
02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기간	도서관	
최정호 작가와의 만남 <수원,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길>	4.19.(토)	홍재실	
문선희 작가와의 만남 <책이 속속 과학이해하기>	4.16.(목)	황사대산	
03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도서관	
자녀와 함께하는 도서관 미니화단 꾸미기	4.12.(토)	서수원	
읽어달라! 책 : 학습능력 키우는 읽기 전략	4.17.(목)	서수원	
도전! 책으로 만나는 미술	4.12~4.19.(토~토)	한림	
책으로 신나게 놀자	4.12.(토)	반드네	

수원시도서관이 2025년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개 공공도서관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는 34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독서문화강의는 ‘수원,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길’(선경도서관, 4월 12일), ‘들썩들썩 6인 6색 작가 X파일’(호매실도서관, 4월 12일) 등 14개 강좌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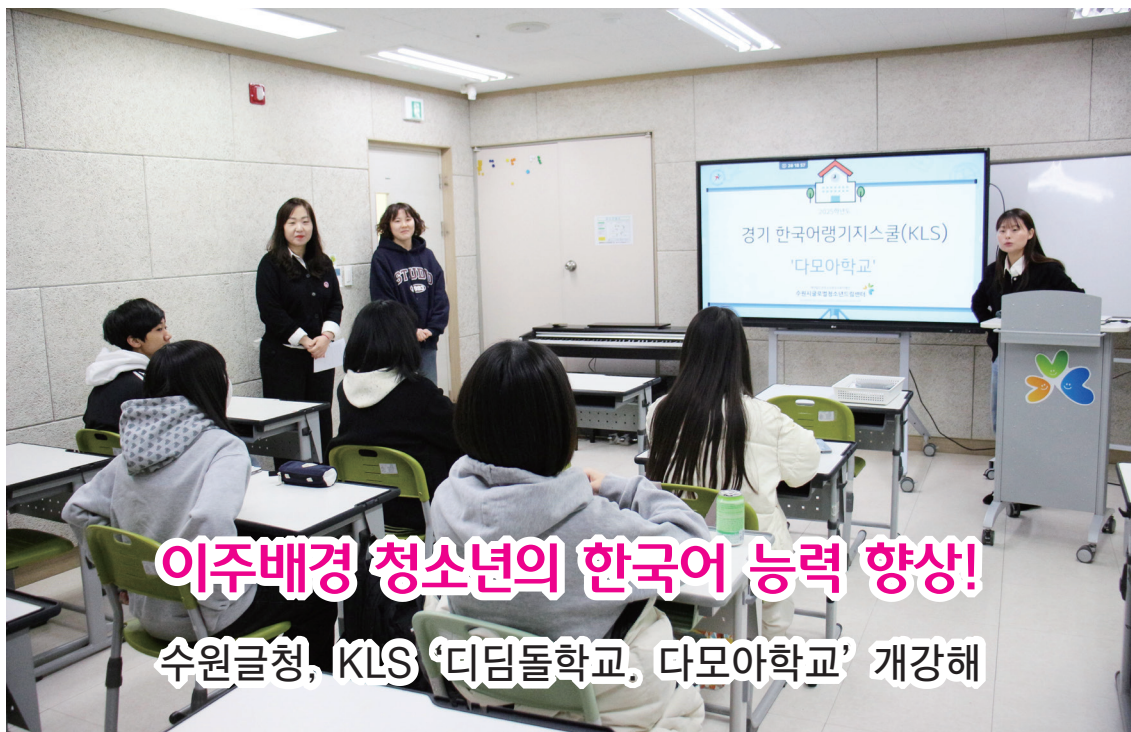
다. ‘최향량 작가와의 만남’(중앙도서관, 4월 19일), ‘윤선희 작가의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강연’(화서다산도서관, 4월 16일) 등 저자 초청 강좌도 열린다.

‘자녀와 함께하는 도서관 미니화단 꾸미기’(창릉도서관, 4월 12일), ‘나만의 자개 보석함 디자인하기’(광교홍재도서관, 4월 12일) 등 체험프로그램과 클래식 연주회, 블랙라이트 공연, 원화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만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http://www.suwonlib.go.kr/reserve/index.do>)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별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강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서관이 지식과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써 활성화되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 수원글청, KLS '디딤돌학교, 다모아학교' 개강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주 요셉)는 2025년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초·중·고등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탈락 예방 및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신청한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위탁 공모에 선정됐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와 다모아학교(중·고등)는 단기형 위탁교육 기관으로 약 90일간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 교과목 학습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적응을 목표로 한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는 지난 3월 17일 수원시 내 학적이 있는 초등학생 총 9명, 다모아학교는 수원시 내 학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총 9명을 대상으로 1학기(3월 17일 ~ 7월 24일) 위탁교육을 시작했다.

수업 시작에 앞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소개와 상호 인사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알아가는 시간과 함께 위탁교육 목표를 전달하고 위탁

기간 중 유의사항과 학급 규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을 기반으로 언어교과(한국어·사회), 기초교과(과학·수학), 심리지원교과(창체)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은 한국어 학습을 기반으로 언어교과(한국어·국어·한국사), 기초교과(과학·수학), 심리지원교과(진로활동·동아리·생활요리)로 구성되었다.

과목별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가 수업을 운영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지원과 더불어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와 다모아학교는 1학과 2학기 별도 운영된다.

2학기 운영은 8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며 추후 신규 위탁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031-247-1324)로 문의하면 친절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민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려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2025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안내서(수신제가)'를 제작했다.

▲임신·출산 ▲영유아·아동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이주민 등 6단계 생애주기로 분류해 시민들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취업준비청년 면접장정 대여(청나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외국인자녀 보육지원 등 113개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지난해보다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 등은 알기 쉽게 표시했다. '2025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안내서(수신제가)'는 수원시 e-book 자료홍보관 홈페이지(<http://news.suwon.go.kr/ebook>)에서 볼 수 있다.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원실과 관내 여성병원(산부인과)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내서에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 이름은 '수원시민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족 지원 안내서'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김영의 기자

진로한국어 '내:일한국어반' 신청해요~

수원글청,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위한 과정 운영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진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 한국어 '내:일한국어반'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로 및 취업과 연계한 심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 목표다.

운영 기간은 4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평일

주 5회 진행된다. 수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어 수준이 중급(TOPIK 2급 이상) 이상이고 진로 관련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20세 이상 이주배경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매년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심리·정서,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세계시민 구성원으로 역량을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070-4125-33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한국어]

내:일한국어

이용자모집

이용절차

초기상담

레벨테스트

수업참여

참여대상

20세 이상 대입/취업 준비 중인 이주배경청소년 누구나

참여기준

중급 이상(한국어토픽 2급)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자

수업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11월 27일(목)

수업내용

진로 관련 수준별 한국어교육, 심화활동 등

모집기간

연중 상시모집

신청문의

070-4125-3309 사회복지사 손주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03 생활민원 서비스 안내

Hướng dẫn dịch vụ dân sự trong đời sống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031-228-2114)

Tổng đài TP Suwon

☑ 운영현황 Thông tin hoạt động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야간 및 토/일/공휴일 : 당직실)

Thời gian làm việc : Ngày thường từ 08:00~20:00 (Ngày nghỉ/ thứ 7/ chủ nhật và ban đêm : Phòng thường trực)

📍 위치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2층(수원시 영통구 대악 4로 33)

Vị trí : Tầng 2 trung tâm an toàn đô thị tổng hợp TP Suwon (33, Daehak 4-ro, Yeongtong-gu, Suwon-si)

☑ 주요상담분야 Lĩnh vực tư vấn chủ yếu

📍 일반상담 : 시정정책, 각종 행사, 민원 안내 등 시정 전반

Tư vấn cơ bản : Chính sách thành phố, các sự kiện, hướng dẫn dân sự trong toàn thành phố v.v..

📍 행정업무 연계 상담 : 7개 분야

Tư vấn kết nối bộ phận hành chính : 7 lĩnh vực

▶ 지방세 정보시스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차량등록,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서 정보시스템

Hệ thống thông tin thuế địa phương, hệ thống quản lý nước, hệ thống dừng-dỗ xe trái phép, đăng ký xe, quỹ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phí phát sinh trong quản lý giao thông, hệ thống thông tin thư viện.

📍 생활불편 민원 접수 : 공공시설 및 가사 홈서비스 민원 접수

Tiếp nhận khiếu nại dân sự bất tiện trong sinh hoạt : Tiếp nhận dân sự tại nhà và nơi công cộng

가사홈서비스 - Yes생활민원처리반 운영

Hỗ trợ dịch vụ tại nhà - Đội xử lý sinh hoạt dân sự Yes

☑ 서비스 대상 : 사회위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Đối tượng : Người có mức sống thấp trong xã hội (thu nhập dưới mức trung bình, thu nhập cơ bản, v.v..)

☑ 서비스 분야 :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처리

Lĩnh vực : Giúp xử lý các tình huống bất tiện trong sinh hoạt

전기설비	명광등, 전구, 콘센트, 센서등, 스위치, 전기선 연결 등
Lắp đặt thiết bị điện	Kết nối dây điện đèn huỳnh quang, bóng đèn, ổ cắm điện, đèn cảm biến, công tắc v.v..
전자기기	가전·통신제품 점검 및 소규모 수리
Thiết bị điện tử	Kiểm tra thiết bị thông tin-điện tử dân dụng và sửa chữa nhỏ v.v..

배관설비	수도꼭지, 배관 막힘, 에어컨·보일러 점검 등
Lắp đặt đường ống	Kiểm tra điều hòa-hệ thống sưởi, đường ống bị tắc, vòi nước v.v..
소규모 집수리	수도꼭지, 배관 막힘, 에어컨·보일러 점검 등
Tu sửa nhà với quy mô nhỏ	Tu sửa lưới trống côn trùng, sửa nệm điện, dán tường, sửa khoen cửa v.v..
기타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의 처리 등
Dịch vụ khác	Xử lý các vấn đề khác gây ra bất tiện cho sinh hoạt.

* 대규모 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Không hỗ trợ các dịch vụ như : lắp đặt thiết bị dùng công cộng hay sửa chữa với quy mô lớn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Thời gian làm việc : 9:00 ~ 18:00 từ thứ 2 ~ 6

☑ 처리비용 : 기본 자재 및 서비스 무료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재는 민원인 직접 구매)

Chỉ phí sửa chữa : Miễn phí dịch vụ và phí mua thiết bị cơ bản(Trong trường hợp trung tâm không có thiết bị thì cá nhân phải trực tiếp mua)

☑ 신청 및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031-228-2114))

Liên hệ và đăng ký : Tổng đài TP Suwon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Dịch vụ cấp hồ sơ hành chính

☑ 정부24 Trang wed chính phủ 24(☎1588-2188/ trang web : www.gov.kr)

📍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

Đây là dịch vụ cổng thông tin nhân dân trực tuyến hướng dẫn đăng ký hồ sơ dân sự cần thiết và đăng ký xin cấp phát tìm hiểu qua online 24 giờ/ 365 ngày, bất cứ nơi nào.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 즉시 발급(47종 무료, 일부 유료)

Cấp ngay giấy đăng ký cư trú-bản sao hộ khẩu thường trú, sổ đăng ký đất đa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giấy chứng nhận cư trú trong nước, sổ đăng ký tòa nhà, v.v.(47 loại miễn phí, một số loại có phí)

▶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 인터넷 신청,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절차 안내

Hướng dẫn thủ tục xử lý việc dân sự và đăng ký qua internet như đăng ký cư trú, giấy chứng nhận nộp thuế địa phương, các loại giấy phép v.v..

☑ 무인민원발급기 Máy cấp hồ sơ hành chính tự động (☎1899-3300, trang web : www.suwon.go.kr)

📍 행정기관 방문 없이 가까운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 등 119종의 민원 증명 서비스 제공

Cung cấp 119 loại dịch vụ chứng minh dân sự như bản sao đăng ký chứng minh nhân dân một cách nhanh chóng và tiện lợi từ máy cấp hồ sơ hành chính tự động gần nhất trong TP Suwon mà không cần đến cơ quan hành chính

2024년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Hướng Dẫn Sinh Hoạt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ăm 2024

Theo mục 2 điều 14 của 「Luật cơ bả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được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công nhận là người có đóng góp đặc biệt cho Afghanistan.

☑ 문의처 Liên hệ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Ủy ban phường theo địa chỉ cư trú

📍 생계·의료·교육급여 Chi phí sinh hoạt y tế học tập

: 보건복지상담센터 Trung tâm tư vấn phúc lợi y tế (☎129),

복지로 bộ phận phúc lợi (www.bokjiro.go.kr)

📍 주거급여 Trợ cấp nhà ở

: 국토교통부 콜센터 Tổng đài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và đất đai (☎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 tổng đài trợ cấp nhà ở LH (☎1600-0777),

마이홈 My Home(www.myhome.go.kr)

긴급복지지원

Hỗ Trợ Phúc Lợi Khẩn Cấp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Là chế độ giúp thoát khỏi tình huống nguy cơ cho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duy trì kế sinh nhai, do tình trạng gặp nguy cơ đột ngột, bằng cách hỗ trợ các dịch vụ như sinh kế, y tế, nhà ở v.v..

☑ 외국인 적용 대상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ủ điều kiện hưởng trợ cấp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Theo mục 2 điều 15 của 「Luật hỗ trợ phúc lợi khẩn cấp」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hợp pháp trong nước phải có điều kiện như sau.

※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Nếu xem xét không phải hoàn cảnh hỗ trợ hoặc không đủ điều kiện thì phải hoàn trả lại số tiền đã nhận hỗ trợ.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Là người kết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을 돌보고 있는 사람

Người ly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hoặc người vợ/chồng công dân Hàn Quốc đã mất nhưng đang nuôi dưỡng người có quan hệ chính thống với người đó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ha mẹ hoặc con)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Người được thừa nhận là dân tị nạn theo điều 2 khoản 2 「Luật dân tị nạn」

04 사회보장제도 안내

Hướng Dẫn Chế Độ An Sinh Xã Hội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Dịch Vụ Hỗ Trợ Hộ Nghèo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Để đảm bảo kế sinh nhai cơ bản cho hộ thu nhập thấp, có hoàn cảnh khó khăn và giúp tự lập bằng cách hỗ \trợ chi phí sinh hoạt, y tế, nhà ở, học tập theo từng hoàn cảnh

☑ 외국인 적용 대상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ủ điều kiện hưởng trợ cấp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hoàn thành việc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điều 31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Là người kết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có đủ một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Bản thân hoặc vợ/chồng của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đang mang thai.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Người đang nuôi dưỡng trẻ vị thành niê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bao gồm kế phụ, kế mẫu, quan hệ con nuôi)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Người đang cùng cư trú và sinh kế với người có quan hệ chính thố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ủa vợ/ chồng.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Người ly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hoặc người vợ/chồng người Hàn Quốc đã mất nhưng phải nuôi dưỡng trẻ vị thành niên(bao gồm kế phụ ,kế mẫu, quan hệ con nuô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Người đang mang thai của chồng đã tử vong là công dân của Hàn Quốc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eo điều 32 「luật dân tị nạn」 do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chứng nhận theo điều 2 khoản 2 「luật dân tị nạn」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 2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픈 특별 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Ministry of Justice, ‘Electronic Entry Reporting System’ implemen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implementing the ‘Electronic Entry Report System’ that allows foreigners wishing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to submit their entry report forms online (electronically) during the immigration inspection.

***Why is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system being implemented?:** Currently, foreigners wishing to enter Korea must fill out a paper entry declaration form by hand and submit it directly to the immigration officer when undergoing immigration inspection. There is no way to submit it in advance before entering the country, and it is inconvenient to have to fill it out by hand when arriving at the airport. In addition, the immigration officer checks the information on the submitted paper entry form and scans it one by one during the entry inspection, which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time for entry inspection. To eliminate this inconvenience, the Ministry of Justice started developing an electronic entry report system last year and implemented

the electronic entry report system on February 24.

***Who should file an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The entry declaration is mainly for foreigners who enter Korea for a short-term stay of 90 days or less, such as tourists. In addition, foreigners who enter Korea for a long-term stay must file an entry declaration at the airport or port if they have not yet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in Korea.

However, ① holders of a vali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② foreigners who have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in Korea (including permanent resident holders and those who have reported their domestic residence), ③ holders of a group (electronic) visa, and ④ flight attendants, etc. do not need to submit an entry card (including an electronic entry card). For the time being, both a paper entry card and an electronic entry card can be used.

***How do I submit the electronic arrival**

card?: You can fill out and submit the electronic arrival card from 3 days prior to your arrival in Korea until before your entry inspection by accessing the electronic arrival card website (www.e-arrivalcard.go.kr) on your PC or smartphone (you can also use a QR code).

If you do not enter the country within 72 hours of submitting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m,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m already submitted will be deemed invalid.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homepage menu is divided into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 each individual and “group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 group input, so you can fill it out according to the number of applicants. In particular, if you take a picture of the page of your passport with your photo and personal information using your smartphone and upload it to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website,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date of birth, and passport number will be

automatically entered.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website is available in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Thai, Vietnamese, and Russian.

***Can I check if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has been submitted correctly?:** The person submitting the declaration will receive an ‘e-mail confirming submission completion’ containing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issuance number and expiration date. If you submit your entry declaration form online in advance, you will not have to fill out the form at the port of entry, so the waiting time for immigration inspection will be reduced and airport congestion will be alleviated, making it more convenient for foreigners. In addition, since the declaration information is entered and collected electronically,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nd work efficiency can be improved, and information on foreign entrants can be managed more systematically. <한글 기사 33면>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пускает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Доступно на 7 языках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недрило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иностранцам, въезжающим в страну, подавать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онлайн (в электронном формате) во время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чем нужна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ностранцы, въезжающие в Корею, должны заполнять бумаж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в ручную и передавать его офицеру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заранее, поэтому приходится заполнять его по прибытии в аэропорт, что создает неудоб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офицеры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вручную проверяют и сканируют поданные бумажные формы, что увеличивает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контроля.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эти неудоб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чало разработку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а 24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ввело ее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Кто должен подав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должны подавать в основном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ающие в Корею с целью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о 90 дней, включая туристов.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иностранцы, планирующие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ебывание, еще не прошли регистрацию иностранца в Корею, они также должны подать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аэропорту или морском порту.

Однако следующие категории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подачи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нное): ① Владельцы действующе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электрон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K-ETA) ② Иностранцы, уже прошедшие регистрацию в Корею (владельцы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лица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③ Владельцы групповой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ы ④ Члены экипажей самолет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бумаж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так и электронное.

Как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на компьютере или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www.e-arrivalcard.go.kr) или с помощью QR-кода. Заполнить и отправи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за 3 дня до прибытия в Корею и вплоть до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Если после подачи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въезд не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в течение 72 часов, заяв

ление аннулируется. На сайте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ва варианта подачи: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форма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каждым человеком отдельно и Групповая форма дл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внесения данных.

Особенно удобно, что при загрузке фото страницы паспорта с личными данными на сайт, такие сведения, как имя, дата рождения и номер паспорта, заполняю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айт поддерживает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та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Можно ли проверить, правильно ли и подано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ает на email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одачи», содержащее номер заявления и срок его действия....

<중략,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직업훈련으로 자립의 토대 만들어요 수원다가,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월 20일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사전 교육과 직업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반기는 사전교육(3월 20일~4월 25일)으로 ITQ(한

글) 과정, 직업훈련 교육(5월 8일~6월 26일)과 이중언어 강사 자격증 취득과정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사전교육(8월 19일~9월 18일)으로 ITQ(엑셀) 과정과 직업훈련 교육(10월 14일~12월 2일)으로 NIE 자격 취득과정이 진행된다.

NIE는 '신문 속 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의미하며 신문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논술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격증 과정이다. 이중언어강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

김영의 기자

과수공원 체험 프로그램 신청 수원시, 4월 4일까지 모집해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수원시 과수공원 과수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과수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시민 등이 수원시 과수공원(호매실동 1382 일원)에서 과일을 수확하고, 맛보는 오감체험 프로그램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65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월 체리 체험을 시작으로 매실(6~7월), 자두(6~8월), 복숭아(7월), 포도(8월), 배(9월), 사과(9~10월) 체험이 이어진다.

수원에 거주하는 6세 이상(2019년생)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 명이 한 가지 과일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료는 1인당 3000원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점수' 게시판에서 '과수체험'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또 4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목공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목공 체험교실은 장안구 만석공원 내 '수원시 목공 체험장'에서 KC인증키트(수원이 상자 등 7종), 나무 도마, 협탁, 의자 등 다양한 목공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기간은 4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초학습지원

2025년 1학기 학습교실 안내

♥2025년 1학기 학습교실 개강♥

교육 내용

취학 전·후 기본학습지원
(읽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 등)

교육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6세(2020년생)~13세(2013년생)
(외국인가정 자녀 가능)

교육 장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 강의실(4층)

★개강 날짜: 3월 17일★

신청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담당자 추후 연락)

문의 전화

031-257-8505
(기초학습지원 담당자)

✓ 우선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센터 내 방문교육사업(자녀생활방문서비스) 참여 시 신청 불가

1학기 운영 학습교실 안내

수업명	요일/시간	회기 수	나이	인원
유아1반	화, 목/16:00~17:20	54회기	6,7세 (2019~2020년생)	4명
유아2반	수, 금/16:00~17:20	52회기	6,7세 (2019~2020년생)	4명
초등준비반	월, 수/16:00~17:20	54회기	8~10세 (2016~2018년생)	4명
한글새싹1반	수, 금/16:00~17:20	52회기	중도입국자녀 6~10세 (2016~2020년생)	4명
한글새싹2반	화, 목/16:00~17:20	54회기	중도입국자녀 11~13세 (2013~2015년생)	4명
한글새싹3반	화, 목/16:00~17:20	54회기	중도입국자녀 11~13세 (2013~2015년생)	4명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Seoul Metropolitan Cit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HELLO

สวัสดี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부모관계 향상과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 지원

Point

이중언어교실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는 부모·가족코칭 참여 필수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
정보공유 등

이중언어 사용 방법

이중언어교실- 중국어

기간 연간 상시 모집

대상 0~18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문의 070-4047-3112 이중언어코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송죽동) 3층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

경기도

수원특례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Seoul Metropolitan Cit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봄꽃처럼 다채로운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중창단 및 다문화 자녀 진로 설계 지원사업 등 모집



#결혼이민자 중창단 모집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자 중창단 ‘하모니 브릿지’ 단원을 모집한다.

202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진행된다. ‘하모니 브릿지’ 단원은 노래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 7명을 모집하며,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받는다.

활동은 4월부터 11월까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15회기 이뤄지며, 공연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소는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실이며, 다양한 장르 노래 강습 및 공연이 진행된다. 신청은 네이버폼(QR 코드 스캔) 작성 후 제출(<https://naver.me/FvERf06Y>) 하면 된다.

#진로 설계 지원사업 실시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진로 설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2025년 진로 설계 지원사업은 다문화, 외국인과의 난민 가족 자녀의 진로 고민이나 생활 전반 고민이나 갈등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진로프로그램 지원하며 소통의 어려움으로 학업 및 진로 선택이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직업 트렌트를 반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가정 내 문제, 학업 및 진로,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도 1:1 상담을 진행하며, 상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가족센터(070-4336-0429)로 하면 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오산시는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자신감 회복, 역량 강화, 외부연계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구직단념, 자립 준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북한이탈 청년(18~34세)과 오산시 거주 19~39세(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참여 가능)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모집인원은 총 96명(단기 24명, 중기 48명, 장기 24명)이며 자신감 회복, 역량 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8)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오산시,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 지원기간
2025년 4월~12월

접종대상 2025. 4. 1. 기준 오산시 1년이상 거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950.12. 31. 이전 출생자)

접종장소 오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접종시간 월, 화, 수요일 오전 09:00~11:00, 오후 13:00~15:00 (※ 목, 금요일 접종 불가)

지원백신 ● **대상포진 생백신 > 1회 무료 접종**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오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 8036-6047, 6061, 6065, 6688

오산시(시장 이권재) 보건소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다. 단,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접종 일정을 고지하며, 행정동별로 순차적·분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해 매주 월·화·수요일(오전 9:00~11:00, 오후 13:00~15:00) 오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보다 발생률이 8~10배 높다.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종 일정 및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31-8036-60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공구 빌려 드려요”

오산시는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 사업인 '1472살 퍼드림' 사업을 3월 31일부터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공구대여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필요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구매하기 힘든 생활 공구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현재 가정용 공구 세트와 충전드릴, 사다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 31여종을 빌려주고 있다.

그동안 무료 공구대여 서비스는 '오산지역자활센터 1472사업단'에서만 운영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관내 8곳의 행정복지센터로 사업 거점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대여 공구 품목도 다양화하는 한편 대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1472살퍼드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 2회 냉·난방기 등 계절별 필수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활불편민원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한국어 실력, 재외동포가 가장 높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가장 낮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발표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어 실력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영주(4.3점), 재외동포(4.2점), 방문취업(3.8점) 순서예요. 비전문취업(2.8점), 전문인력(2.8점)은 한국어 실력이 가장 낮았어요.

통계청은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 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 조사의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3월 19일에 발표된 이번 통계자료는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한 것이예요.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2가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해 살펴보면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 비중은 20.8%였어요. 체류자격별로 보면 유학생(55.6%), 전문인력(30.1%)이 토픽 급수를 많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취업(6.0%), 재외동포(7.3%)는 적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토픽 급수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상당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급수 비중은 2급(19.4%), 4급(19.4%), 3급(19.0%) 순서였어요. 가장 실력이 뛰어난 6급의 취득 비중은 재외동포(34.7%), 영주(34.0%)가 높고, 가장 실력이 낮은 1급은 비전문취업(33.0%)이 가장 높았어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능력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임금수준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인 51.2%, 300만원 이상이 37.1%로 나타났어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소득이 낮은 직종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0만~300만원 급여 비중은 비전문취업(70.8%), 전문인력(50.5%), 결혼이민(46.6%), 방문취업(44.9%) 순서로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체류자격은 영주(55.2%), 전문인력(46.5%), 재외동포(46.1%) 순서였어요. 유학생은 100만~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많았어요.

생활 만족도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비전문취업(4

점)이 가장 높고, 방문취업·유학생·재외동포(4.2점)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보다 약간 낮았어요.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이며, 체류자격별로 유학생(27.7%)이 가장 높았어요.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같이 사는 가족관계 ▲주변 사람관계 ▲본인 직업 ▲본인 소득 ▲지역 주거환경 ▲여가생활 등 6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가족관계 항목이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고 본인 소득이 3.7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내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에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 사회 경제 관련 이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베트남어 13면, 러시아어 17면, 영어 17면>

파파야스토리

오산시

고립탈출! 오산시와 함께 도전하시겠습니까?

청년도전지원사업

2025년 참여자 모집

알림신청 QR

참여혜택

이수 기준 총측시 최대 350만원의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 참여 과정, 이수 현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란?

구직단념 등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자신감회복, 역량강화, 외부연계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참여자대상

18~34세 청년 중

① 6개월 이내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②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③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④ 북한이탈 청년

⑤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또는 오산시 거주 19~39세 청년 등

모집기간

2025. 3. 26. ~ 상시 모집(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모집기간 중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

알림 신청 시 안내 문자 발송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031-8036-7578

운영장소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세미나실

(단기)

• 5주(40시간) 참여

• 참여수당 : 50만원

4월 18일~5월 16일 매주 금 / 24명

(중기)

• 15주(120시간) 참여

• 참여수당 : 50만원×3회

• 이수 인센티브 : 20만원

• 취업인센티브 : 50만원

5월 13일~8월 19일 매주 화 / 24명

5월 14일~8월 20일 매주 수 / 24명

(장기)

• 25주(200시간) 참여

• 참여수당 : 50만원×5회

• 이수+구직 인센티브 : 50만원

• 취업인센티브 : 50만원

5월 8일~10월 30일 매주 목 / 24명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대상: 다문화 아동·청소년, 외국인 자녀, 난민가족 자녀

모집방법: 선착순 (1차 진로 및 학업상담은 상시모집) 비용: 모두 무료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면서 나의 진로를 찾아볼까?

원하는 직업군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1Day 프로그램과 진로동아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진로 선택에 도움받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깊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진로 동아리

전문가와 함께 진로를 찾아볼까?

진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동기부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진로설계 1:1 컨설팅

집단진로 컨설팅

1:1 진로 및 학업상담

학부모 및 청소년 상담 받을 곳이 없을까?

학부모 및 청소년이 가정 내 문제, 학업, 진로, 교육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에 대한 전문적인 1:1 상담과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1:1 진로 및 학업상담 연동 상시모집/전화접수 필수)

집단상담 (사회성발달)

문의전화 : 070-4336-0429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시 가족센터
OSANSI FAMILY CENTER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배움

구리시가족센터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참여하며 따뜻한 봄 맞이해요

연중 모두가족봉사단 및 가족사랑의날 운영...1인가구 프로그램과 상담사업도 활발히 진행



모두가족봉사단 활동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센터 대교육장에서 모두가족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모두가족봉사단은 구리시 관내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서 월 1회 이상 관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가족봉사단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25년 연간활동 안내 및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활동이 진행되어 가족과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기본소양 교육을 진행해 자원봉사의 필요성, 가치, 인센티브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모두가족봉사단은 11월까지 월 1회 이상 만나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가족사랑의 날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9일, 3월 가족사랑의 날 활동으로 ‘가족플라워 액자(가훈)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가족플라워 액자(가훈)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며, 가훈의 의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가훈은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윤리적 지침으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여 가족플라워 액자(가훈)

만들기를 진행했다. 구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3월 가족사랑의 날 활동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가족사랑의 날은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인가구 프로그램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0일, 1인가구지원사업 생활꿀팁바구니 ‘생활정리플러스’를 진행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생활정리플러스’는 1인가구에게 필요한 냉장고 정리 수납 교육을 진행했다.

3월 8일에도 1인가구지원사업-중장년수다살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12명이 참석한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중장년수다살롱 및 진행방법을 안내하고 모임별로 모여 단체신청서를 작

성했다. 또한 김형기 강사가 참여해 동아리 회원 간 친해지는 시간을 위해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

2차 상담사례회의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1일 센터 교육장에서 상담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센터는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6회 상담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가족센터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합니다〉

송하성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구리시, 모기·해충 감염병 예방, 스마트 방역사업

방역기동반 편성,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등 활용 밀집 지역 관리



구리시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 시기에 대비하여 스마트 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방역기동반 운영을 통해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스마트 방역사업의 핵심은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도입과 질병관리청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을 통한 감시자료 근거 중심의 선제적 방역 방법이다.

3월 중 장자호수공원 내 설치·운영되는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모기 발생 밀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비로,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모기 개체 수, 방역 관련 민원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방역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구리시는 이러한 철저한 방역 계획을 토대로 신속한 방역 활동을 위해 방역기동반 3개반을 편성, 보건소 신속 방역대응반으로 운영하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며, 각 반은 구역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받아 유충 및 성충 방제, 해충 서식지 제거, 긴급 방역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모기 취약지역 내 설치된 170대의 포충기(모기포획기)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포충기는 이산화탄소 및 유인광을 활용해 모기를 유인·포획하는 장치로, 기존의 연막 소독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방역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스마트 방역 사업을 통해 모기·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기온 변화 및 모기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모기 유충이나 성충 모기 서식처를 발견했을 때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031-550-8803)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 ‘모기서식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방역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자.

이지은 기자

갈매도서관, 운영

한달에 한권 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 갈매도서관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독서 경험을 기록하는 ‘TEXT hip! 한 달에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EXT hip! 한 달에 한 책 읽기”는 영상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자신의 독서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절차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매월 선정된 도서를 읽고 책에 대한 서평, 인상 깊은 문장 필사, 50자 리뷰 등 형식에 제한 없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성하는 사람에게 대출 권수 확대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갈매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31-550-8996 이지은 기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돌봄 공백없는 구리시

구리시 방문형 긴급돌봄 지원 사업 안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구리시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파견하여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입원, 야근 등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본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원으로 등록된 아동

<정회원 등록 방법>

1. 정부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유형 결정 통지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idolbom.go.kr) 및 신청

신청방법

1. 희망 서비스 신청일까지 여유가 있어요!
방법1)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서비스 직접 신청
*원활한 배정을 위해 한달 전~최소 3일 이전 신청 권고
방법2)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의 일시 연계서비스 신청을 통한 AI 배정(당일 4시간 전까지 가능/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추가요금 3,000원 부담시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야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에는 신청 일시적 제한됨

2.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지급 당장 신청이 필요해요!
방법1)연재나돌봄콜센터(010-9979-7722) 전화 신청
*평일 18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8시~20시까지 이용가능
방법2)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의 일시 연계서비스 신청을 통한 AI 배정(당일 4시간 전까지 가능/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추가요금 3,000원 부담시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야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에는 신청 일시적 제한됨

이용요금

- 1인 1시간 기본요금: 12,180원(기본)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신청 시 건당 3,000원 추가
- 평일 심야(22시~06시) 및 일요일 휴일 이용 시
*시간당 18,270원 (50% 증액)
- 일요일, 휴일 심야(22시~06시) 이용
*시간당 23,260원 (100% 증액)

※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본인부담비율 15% ~ 100%
※ 서비스 이용 후 소득 유형에 따라 최종 결제 금액 변동 가능

문의전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31-551-3133
연재나돌봄콜센터 ☎010-9979-7722

경기도가 육아부담을 함께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 한부모가족증명서 없어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2인 가구 : 약 393만원/월, 3인 가구 : 약 503만원/월

▶ 신청 가능 시군이 어디인가요 ?

- ✓ 12개 시·군 화성, 성남, 시흥, 광명,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가평

▶ 정부지원 한부모 양육비를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정부지원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65%) 이하] 받고 계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고3 12월까지 ※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검색 →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 신청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평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지원 언어 베트남어
기타 언어는 타센터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guri.familynet.or.kr/)
→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다문화가족서비스 → 통번역서비스 → 신청하기

지원 내용 통역, 번역, 정보제공

통역	번역	정보제공
- 가족간 의사소통, 직장생활 통역 - 병원, 은행, 학교, 공공기관 이용 통역 - 센터 이용 상담 및 센터 내 외 프로그램 이용시 통역 지원	- 안내문 (시간표, 가정통신문, 등) - 일상생활 (생활용어, 문자, 등) - 의료: 진단서, 처방전, 등 - 설문조사지 및 홍보지 등	- 체류 및 국적 취득 관련 (체류, 영주권, 국적, 초청 등)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제공 -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능력 시험 - 센터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용 - 한국문화와 한국생활 (교통, 편의시설 이용 등)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 불편이 없도록 긴급상황외 통번역 및 동행 통역 이용시 사전 예약 하기 시 바랍니다

문의: 070-7776-2981 또는 e-mail: guri-family@naver.com



구리시가족센터 GURISI FAMILY CENTER

온가족 보듬사업 사례관리

구리시가족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구리시가족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족 내 복합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과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구리시 거주 모든 가족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가구 우선지원)

지원내용 맞춤형 지속적 사례관리 제공, 지원인력파견(학습정서지원, 생활용품지원, 생활도움지원 등), 긴급위기지원,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신청방법 • 신청 후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 1 홈페이지 로그인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STEP 2 홈페이지 신청
메뉴: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온가족보듬" 신청

STEP 3 센터 전화
문의 연락처로 전화

※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문의처로 연락

홈페이지 QR코드 

문의 구리시가족센터 사례관리팀
T. 070-7775-6976
T. 070-7775-6549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자부담 지원...실질적 혜택 확대해

남양주시, 도서관 이용 활성화·건강교육 등 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착한어린이 집 사업을 통해 조성된 모금액을 활용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자부담을 지원하는 ‘보육 전용 후원금’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 이 보육료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보육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외국인 자녀 가정이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추

후 취약계층 지원 등 후원금 운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착한어린이집’은 바자회·알뜰시장을 통해 마련한 모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어린이집으로, 관내 52개소 어린이집에서 매월 3~5만 원씩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 보육전용 후원금으로 약 3,791만 원이 누적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 전용 후원금 사업이 외국인 가정의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따뜻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 ‘책이 왔어요’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스마트도서관 대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스마트도서관에서 신착도서를 대출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로, 생활 속 독서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도서관은 △덕소역 △남양주시청 △평내호평역 등 3개소에서 운영되며,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을 방문해 원하는 도서를 검색 후 대출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준비된 선물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이동중이나 출퇴근길 등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590-8570

보건소, 찾아가는 건강교육

남양주보건소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

들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운영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호평·평내·화도·수동 지역 내 15명 이상이 모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교육은 해당 기관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며, 90 ~ 120분 동안 △보건 △영양 △구강 △운동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보건 교육에서는 절주의 필요성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이 제공되며, 영양 교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방법을 다룬다. 또한 올바른 치솔질과 구강 건강관리법,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도 함께 교육한다.

남양주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교실

어휘, 발음, 읽기, 또래와의 상호작용 우리아이 잘 하고 있는 걸까?
자녀 언어발달 관련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보세요!

신청기간

연중(1월~12월)

- 사전예약 및 회원가입 필수
- 서비스 순차적 진행

신청대상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재학중)
-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이용자는 중복지원 불가(단, 언어평가는 진행 가능)

신청 및 문의

031-555-8261 (가족상담팀)

서비스 내용

언어평가

- 표준화된 검사도구 활용 언어발달수준 평가
- 결과를 토대로 언어교육 대상자 선정

언어교육

-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어휘, 구문, 읽기, 의사소통 능력 등)
- 주 2회, 회당 40분 센터 교육(주 1회 40분 또는 주 1회 80분 탄력 운영 가능)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 FAMILY CENTER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모국어로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받는다!

문의전화 031-553-8211

- **지원 대상:** 관내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및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가정통신문,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 **지원 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 등
- **지원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기타 언어는 타 센터와 연계하여 번역만 지원 가능)
- **이메일 주소 및 문의:** nyj8211@hanmail.net
베트남어: 031-553-8211
중국어: 031-556-8212
몽골어: 031-556-8211

남양주시가족센터: <https://nyjfc.familynet.or.kr>
남양주시 다산지급로16번길 95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 FAMILY CENTER

2025년 남양주점프버룩시장 개장

일시 2025. 4. 5.(토) ~ 10. 25. (매주 토요일, 7·8월 제외)
장소 삼패한강시민공원 및 각 권역장

[자세히 보기](#) →

Năng lực tiếng Hàn, Hàn Kiều đạt mức cao nhất và lao động phổ thông người nước ngoài đạt mức thấp nhất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Trình độ tiếng Hàn trung bì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là 3,4 trên tổng số điểm cao nhất là 5. Khi xét về năng lực tiếng Hàn theo visa cư trú, thứ tự có trình độ tiếng Hàn thấp nhất lần lượt là visa vĩnh trú (4,3 điểm), Hàn kiều (4,2 điểm) và visa lao động (3,8 điểm), lao động phổ thông (2,8 điểm) và lao động chuyên môn (2,8 điểm).

Từ năm 2017, Cục Thống kê Hàn Quốc đã tiến hành khảo sát về tình trạng cư trú và việc làm của người nhập cư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ông dân nhập tịch)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Và kết quả của những cuộc khảo sát này hiện đang được sử dụng làm dữ liệu cơ bản để tìm hiểu tình trạng thực tế về việc làm, quản lý nơi cư trú và hội nhập xã hội đối với người nhập cư, cũng như để thiết lập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Những số liệu thống kê này, được công bố vào ngày 19 tháng 3 vừa qua, và dựa vào ‘Kết quả khảo sát tình trạng nhập cư và việc làm năm 2024’ có thể giúp chúng ta hiểu thêm về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eo từng loại hình visa cũng như cuộc sống của họ tại Hàn Quốc.

Năng lực tiếng Hà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việc giỏi tiếng Hàn sẽ mang lại rất nhiều lợi thế. Vì vậy, chính phủ Hàn Quốc triển khai hai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iếng Hàn: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và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TOPIK).

Đối với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tỷ lệ người nước ngoài thi đỗ các cấp trong các kỳ thi này là 20,8%. Theo loại hình visa, du học sinh (55,6%) và lao động lành nghề (30,1%) đạt được cấp bậc TOPIK cao, trong khi visa lao động (6,0%) và visa Hàn kiều (7,3%) lại đạt được những cấp bậc TOPIK thấp hơn.

Có nhiều người cho rằng có khá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đạt TOPIK do đang theo họ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Tỷ lệ về điểm điểm số trong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lần lượt là cấp 2 (19,4%), cấp 4 (19,4%) và cấp 3 (19,0%).

Điểm năng lực tiếng Hàn cao nhất là cấp 6 là ưu thế của Hàn kiều (34,7%) và visa vĩnh trú (34,0%), trong khi điểm năng lực tiếng Hàn thấp nhất là cấp 1 thuộc về những lao động phổ thông (33,0%).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ăng lực tiếng Hàn chiếm rất nhiều ưu thế trong việc thay đổi visa cư trú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việc học tiếng Hàn là rất cần thiết.

Mức lương

Mức lương tháng trung bình của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 51,2% với mức lương từ 2 đến 3 triệu won, trong khi có 37,1% người nước ngoài có mức lương từ 3 triệu won trở lên. Chúng ta có thể thấy rằng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vẫn làm việc với thu nhập rất thấp

so với mặt bằng chung.

Tỷ lệ mức lương từ 2 đến 3 triệu won lần lượt theo thứ tự là lao động phổ thông (70,8%), lao động lành nghề (50,5%),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46,6%) và lao động bình thường (44,9%). Và mức lương từ 3 triệu won trở lên chiếm cao nhất ở visa vĩnh trú (55,2%), lao động lành nghề (46,5%) và Hàn kiều(46,1%). Bên cạnh đó, phần lớn du học sinh có thu nhập từ 1 đến 2 triệu won (48,3%).

Mức độ hài lòng trong đời sống

Mức độ hài lòng chu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là 4,3 điểm, trong đó visa lao động phổ thông (4,4 điểm) chiếm tỷ lệ cao nhất, còn người lao động, du học sinh và Hàn kiều (4,2 điểm) chiếm tỷ lệ thấp hơn một chút so với mức trung bình của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Tỷ lệ người nước ngoài từ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là 17,4%, và khi xét theo tình trạng cư trú,du học sinh (27,7%) lại chiếm tỷ lệ cao nhất.

Trong cuộc khảo sát về mức độ hài lòng với cuộc sống, đã tiến hành điều tra ở 6 mục cơ bản là ▲ Mối quan hệ gia đình ▲ Mối quan hệ với mọi người xung quanh ▲ Công việc ▲ Thu nhập ▲ Môi trường sống tại địa phương ▲ Hoạt động giải trí. Mối quan hệ gia đình đạt điểm hài lòng cao nhất là 4,5 điểm, trong khi thu nhập có điểm thấp nhất là 3,7 điểm.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แรงงาน E-9, E-10 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รักษาในระยะยาวได้แล้ว!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

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อวีซ่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ไม่ใช่มีโออาซีพ (E-9), วีซ่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ลูกเรือ (E-10) ให้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รักษาในระยะยาวได้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แผนปฏิบัติการ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ปี 2025เพื่อเอาชนะวิกฤตการสูญเสียระดับภูมิภาคและส่งเสริมการพัฒนาภูมิภาคที่สมดุล ในปีนี้ได้ขยายพื้นที่เป้าหมายสำหรับ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และจัดตั้งระบบวีซ่าใหม่เพื่อให้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ในระบบ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ได้มากขึ้น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ด้าน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เป็นเวลา 2 ปีจนถึงปี 2026มาดูการปรับปรุงที่สำคัญกันไหม?

***มีอะไ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บ้าง?:** สิ่งที่สำคัญที่สุดคือ มีการเปิดทาง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อวีซ่าทำงานที่ไม่ใช่มีโออาซีพ (E-9) และวีซ่าทำงานสำหรับคนเดินเรือ (E-10) ซึ่งก่อนหน้านี้ไม่ได้รับสิทธิ์ในการเป็น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 ให้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สถานะ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ได้ การปรับปรุงนี้มี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ในพื้นที่ภูมิภาคได้

***วีซ่า E-7-4 กับวีซ่า E-7-4R ต่างกันอย่างไร?:**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รักษาในประเทศนานกว่า 2 ปีด้วยวีซ่า E-9 หรือ E-10 ก่อนหน้านี้สามารถขอวีซ่าระบบคะแน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 (E-7-4) ได้ หากพวกเขา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

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วีซ่า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ที่เพิ่งจัดทำขึ้นใหม่ (E-7-4R) เป็นวีซ่าที่สามารถขอได้หากอาศัยอยู่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และให้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ที่ดีกว่าวีซ่า E-7-4

***วีซ่า E-7-4R มีข้อดีอะไรบ้าง?:** หากหรือไม่ว่าหากได้รับวีซ่า E-7-4 สามารถเชิญครอบครัวไ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แรงงาน E-7-4 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 แต่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ติดตามมากับแรงงาน E-7-4R เช่น ผู้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เฉพาะทางระดับภูมิภาค (F-2-R) 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ในสาขาแรงงานพื้นฐาน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หรือพื้นที่ที่นำ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ได้ การที่มีและภรรยา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ร่วมกันได้อย่าง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นั้นย่อม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มหาศาลอย่างแน่นอน

ประโยชน์หลักประการที่สองคือ หากผู้ถือวีซ่า E-7-4R พำนักรักษาและทำงาน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หรือพื้นที่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ต่อ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เป็นเวลามากกว่า 3 ปีขึ้นไป 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มาถือวีซ่า (F-2-R) สำหรับผู้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เฉพาะทางระดับภูมิภาค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ได้ หากได้รับวีซ่า F-2-R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ขอถิ่นที่อยู่ถาวรได้หลังจาก 5 ปี 〈한글 기사 34면〉

***ต้องทำอะไรถึงจะได้รับวีซ่า E-7-4R? :** เงื่อนไขสำหรับวีซ่า E-7-4 นั้นเหมือนกับเงื่อนไข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วีซ่า E-9 หรือ E-10 ①เงินเดือนประจำปี 26 ล้านวอนขึ้นไป และมีสัญญาจ้าง 2 ปีขึ้นไป ②ต้องมี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ระดับ 2 ขึ้นไป เป็นต้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จุดที่แตกต่างคือ 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วีซ่า E-7-4R แล้ว ผู้ถือวีซ่าจะต้องพำนักรักษา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หรือพื้นที่ที่นำกังวลว่าประชากรจะลดลง

***ต้องทำอะไรถึงจะได้รับวีซ่า F-2-R? :** แรงงาน E-7-4R ที่ทำงานมากกว่า 3 ปีขึ้นไป และต้องการขอวีซ่า F-2-R จะต้องผ่านการเรียน ภาษาเกาหลีระดับ 4 ขึ้นไป(TOPIK ระดับ 4) ในโครง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ก่อนหน้านี้นี้จะเป็นระดับ 3 ขึ้นไป แต่ตอนนี้การที่จะเป็นระดับ 4 ขึ้นไปนั้นยากขึ้นเล็กน้อ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ได้มีการยกเลิกข้อจำกัดเกี่ยวกับประเภทงานที่ผู้ถือวีซ่า F-2-R 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ผู้ถือวีซ่า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ในทุก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 คิม ขอกอุ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รักษ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กล่าวว่า “ผมหวังว่า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ด้านวีซ่าที่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เฉพาะระดับภูมิภาคนี้จะช่วยกระตุ้นการลงทุนไหลเข้ามา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 และช่วยฟื้นฟู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องถิ่น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หรือพื้นที่ที่นำ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

2024.4.11.

KDCA

✈️

Если готовитесь к поездке за границу?

Советы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и

Узнать и провести профилактику заранее!

1/7

2024.4.11.

KDCA

Определение и симптомы кори

Это инфекционное заболевание, которо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оздушно-капельным путём, например при кашле или чихании, и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высокой заразностью.

※ Люди с недостаточным иммунитетом к кори заражаются более чем в 90% случаев при контакте с больным.

Основные симптомы кори

(инкуб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7-21 день)

Продомальный период → Период появления сыпи → Период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то очень заразный период, вызывающий лихорадку, кашель, насморк, конъюнктивит и пятна на слизистой ротовой полости.

Эритематозная сыпь появляется на задней поверхности шеи, под ушами, на туловище, конечностях, кистях и подошвах.

Сыпь исчезает, оставляя после себя пигментацию.

※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осложнения, такие как респиратор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бронхальная пневмония и круп, диарея и острый энцефалит.

2/7

2024.4.11.

KDCA

Страны с крупными вспышками кори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корью растёт* во всём мире, и вероятность заражения людей корью возрастает из-за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а поездок за рубеж.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корью по регионам

Спорадические вспышки и эпидемии продолжаются,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 Европе,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 В 2023 году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корью во всём мире составил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300 000 (в 1,8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2022 году, по данным ВОЗ)

3/7

2024.4.11.

KDCA

Советы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и во время поездок за границу

Перед поездкой

✓ Проверьте, получили ли вы обе дозы вакцины против кори (MMR)
✓ Если вы не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дважды или не уверены, были ли вы вакцинированы, посетит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за 4-6 недель до отъезда и получите две дозы вакцины с интервалом в 4 недели.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 В местах массового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соблюдайте правил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такие как ношение маски, мытьё рук и соблюдение этикета при кашле.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 Если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у вас поднялась температура или появились сыпь,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сотруднику карантинной службы.

4/7

2024.4.11.

KDCA

При появлении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симптомов, таких как лихорадка или сыпь,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Посетит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дев маску и сведя к минимуму контакты с окружающими (воздержитесь от польз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Сообщите медицинскому персоналу свою "историю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ок"

5/7

2024.4.11.

KDCA

Что нужно знать о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кори

Критерии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кори по возрастам

Возраст	Способ вакцинации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5 месяцев	Не подлежат вакцинации
От 6 до 11 месяцев (ускоренная вакцинация*)	Одноразовая вакцинация при выезде за границу ※ Вакцинация против MMR в возрасте до 12 месяцев не входит в число прививок, поэтому в будущем требуется 2 привив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ндартным графиком вакцинации.
Возраст 12-15 месяцев (своевременная вакцинация)	1-я вакцинация
4-6 лет (своевременная вакцинация)	2-я вакцинация
Подростки и взрослые*	※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признаков иммунитета Делают прививку 2 раза (минимум 1 раз) с интервалом не менее 4 недель

※ Если вы родились до 1 января 1968 года, считается, что у вас естественный иммунитет к кори, и прививка не требуется.

※ Случаи без признаков наличия иммунитета к кори

Лица, родившиеся после 1 января 1968 года, у которых в прошлом не было прививок и которые никогда не болели корью, или у которых нет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антител к кори.

6/7

2024.4.11.

질병관리청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1/7

2024.4.11.

질병관리청

홍역의 정의와 증상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과 접촉 시, 90% 이상 감염

홍역 주요 증상

(잠복기 7-21일)

전구기 → 발진기 → 회복기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 발생

목 뒤, 귀 아랫, 몸통, 팔다리, 손·발바닥에 홍반성 발진 발생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

※ 기관지염, 크루름 호흡기 질환, 설사, 급성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

2/7

2024.4.11.

질병관리청

홍역 주요 발생 국가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로 국민들이 홍역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 발생 지역 분포

유럽·중동·동남아를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및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2023년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 약 30만건(22년 대비 1.8배, WHO기준)

3/7

2024.4.11.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여행 전

✓ 홍역 예방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4/7

2024.4.11.

질병관리청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5/7

2024.4.11.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접종 바로 알기

연령별 홍역 예방접종 기준

연령	접종 방법
생후 0-5개월	접종 대상 아님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해외여행 시 1회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의 MMR 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향후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2회 접종 필요
생후 12-15개월 (적기접종)	1차 접종
4-6세 (적기접종)	2차 접종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최대도 1회) 접종

※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홍역에 대한 자연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불필요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7



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 아·아·돌'과 협약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3월 21일 협약을 맺고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남양주 아동청소년 이용 돌봄 네트워크'에 본격 참여했다.

'남양주 아·아·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한 돌봄 네트워크다.

총 1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를 비롯한 각 기관은 주요사업 및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사업의 목적과 방

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25년 네트워크 핵심 목표인 동부권역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남양주외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아·아·돌 네트워크'는 △KACE남양주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세계적인 홍역 확산...조심하세요!

홍역 전염성 강해...남양주시, 해외여행 예방수칙 안내



남양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콧물 등이 나타난 후 전신 발진이 발생하며, 특히 영유아는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크다.

국내 환자 중 상당수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홍역 유행국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많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해외 방문 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역 백신은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총 2회 접종하며, 6~11개월 영아는 가속 접종이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과거 감염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접종 이력이 없으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및 식사 전·후 손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홍역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홍역은 예방이 중요한 감염병으로,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특히 해외여행 후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 이주민연대 살롬의 집, 이주민 대상 무료 검진 실시해



남양주시와 이주민연대 살롬의집은 지난 3월 23일 오후 남양주시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피부질환 검진을 실시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검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감염성 피부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마련됐다.

약 80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참여했으며 △피부질환 진료 상담 △혈액검사(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 △결핵 X-ray 검사 등이 진행됐다. 필요한 경우 검진 후에 전문 의료기관 안내와 치료와 처방도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진은 이날 검진 이후에도 만성 피부질환의 조기 발견에 집중하며 추가 검진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풍양보건소장은 “이번 무료 검진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주민의 적절한 치료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올해 9월 28일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째 무료 검진을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검진 비용은 무료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사업을 확대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 화훼 활성화 위해 5월 중순까지 봄맞이 꽃시장

남양주시는 진접농협과 별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월 중순까지 봄맞이 꽃시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꽃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한 화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지역 화훼 산업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서 남양주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시장은 진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월 18일까지, 별내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5월 22일까지 상시 운영된다. 남양주시화훼연구회(회장 김백준) 소속 화훼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분화류 140여 종 △다육식물 40여 종 등 총 200여 종의 다양한 품종이 전시·판매된다. 행사장에서는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화분, 상토 등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반려식물을 보다 손쉽게 접하고, 꽃과 자연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봄바람에 희망 담은 한국어교육!

어졌다. 강사들은 교육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겨울의 끝자락에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강사들의 교육 열정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중도입국자녀 대상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교육적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고,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한 3월, 강사들은 중도입국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방안을 활발히 교환했다. 이는 한겨울의 고요함을 지나 봄의 활기를 맞이한 시점에, 강사들이 새로운 각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수희 센터장은 “교육 대상별로 진행된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사들이 교육 운영의 방향을 명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강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2025년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차례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1일 결혼이민자 대상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 13일에는 중도입국자녀 대상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강사들 간 협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결혼이민자 대상 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결혼이민자 학습자 특성에 맞춘 교육 방법과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수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확히 이해하고,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각 교육 분야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강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도입국자녀와 결혼이민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방문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부모교육 서비스

- ② 내용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 양육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④ 대상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 1) 임신·출산·영양기 (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2)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3)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12세 이하)
- ⑤ 교육 약 5개월(40회기), 최대 3회 지원
- 기간 ※ 센터 한국어 교육과 중복 이용 불가

교육 시간 및 장소

주 2회, 회당 2시간(18시 이전) / 이용 대상 가정

이용료

소득 판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연도별 상이)

문의전화

광주시가족센터 ☎ 031-798-7137, 7141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

모집기간

상시모집

유의사항

- ① 동일 대상자에 지자체 유사 사업(센터 언어 발달사업, 방문학습지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④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절차



광주시가족센터 내방(신청서 작성 및 홈페이지 가입)



대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유형판정)



서비스 이용

Korean language skills are highest among overseas Koreans and lowest among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이민자 체류실태 결과 안내

The averag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foreigners was 3.4 out of 5. When looking a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y residence status, it is in the order of permanent residence (4.3 points), overseas Koreans (4.2 points), and visiting workers (3.8 points). Non-professional workers (2.8 points) and professional workers (2.8 points) had the lowes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been conducting a survey on the status of immigrant residence and employment targeting immigrants (foreigners and naturalized citizens) residing in the country since 2017.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used a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status of immigrant employment, residence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and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These statistics, released on March 19, utilize the '2024 Immigration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Results' to segment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by their residence status and analyze their lives in Korea.

Korean language skills

It is very advantageous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to be good at Korean. That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operates two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Looking at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who obtained a level was 20.8%. Looking at the residence qualification, international students (55.6%) and professionals (30.1%) obtained a lot of TOPIK levels, while visiting workers (6.0%) and overseas Koreans (7.3%) obtained less. It is estimat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foreigners who did not obtain a TOPIK level are studying for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propor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acquisition levels was 2nd level (19.4%), 4th level (19.4%), and 3rd level (19.0%) in that order.

The proportion of acquisition of the highest level 6 was high among

overseas Koreans (34.7%) and permanent residents (34.0%), and the lowest level 1 was highest among non-professional workers (33.0%).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lso a great help in changing residence status for foreigners, so you should study hard.

Wage level

The average monthly wage level of foreign wage workers was 51.2% with an income of 2 to 3 million won, and 37.1% with an income of 3 million won or more. This shows that many foreigners are still working in low-income jobs and supporting Korean society.

The proportion of salaries of 2 to 3 million won was in the order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70.8%), professional workers (50.5%), marriage immigrants (46.6%), and visiting workers (44.9%), and the residence qualification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over 3 million won were permanent residents (55.2%), professional workers (46.5%), and overseas Koreans (46.1%). The largest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as those with salaries of 1 to

2 million won (48.3%).

Life satisfac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foreigners with their lives in Korea was 4.3 points on average,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4.4 points) being the highest, and visiting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overseas Koreans (4.2 points) being slightly lower than the average of all foreigners.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wh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was 17.4%, and international students (27.7%) were the highest among residence qualifications.

In the life satisfaction survey, six items were investigated: ▲family relationships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you ▲your job ▲your income ▲local living environment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hips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score at 4.5 points, while your income had the lowest score at 3.7 points.

Lee Hyung-il, the commissioner of Statistics Korea, said, "I hope that this repor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ctive use of...<중략, 한글 기사 9면>

Опубликованы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Жизнь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составляет 3,4 балла из 5 возможных. При анализе по статусу пребывания наивысший балл получили: Постоянные резиденты – 4,3;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 границей – 4,2; Иностранцы по визе Н-2 (посещающие для работы) – 3,8

Наименьший уровен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виза Е-9) – 2,8;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иза Е-7 и др.) – 2,8

(На фото: иностранцы на уро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Фонд Института Седжонга) Исследование ситуации с мигрантами и уровнем занятости

С 2017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мигрантов (иностранцев и лиц, получивших гражданство). Эти данн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анализа текущего положения дел в сферах занятости, управления миграцией и интег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а также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

В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19 марта 2024 года да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ы р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а жизн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оро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жизнь иностранцам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две основ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ОPIK).

Среди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ТОPIK сдали 20,8%. По статусу пребывания: Студенты (D-2, D-4) – 55,6%;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Е-7 и др.) – 30,1%; Работа по визе Н-2 – 6,0%;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 границей (F-4) – 7,3%.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не сдавших ТОPIK,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уровней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среди сдавших ТОPIK: 2-й уровень – 19,4%, 4-й уровень – 19,4%, 3-й уровень – 19,0%

Наивысший 6-й уровень получи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 границей (F-4) – 34,7%, Постоянные резиденты (F-5) – 34,0%. Самый низкий 1-й уровень чаще всего у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33,0%).

Так как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могает менять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и иностранца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активно его изучать.

Уровен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редний еж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200-300 млн вон (51,2%); Свыше 300 млн вон (37,1%).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по-прежнему работают в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сферах, поддерживая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Доля получающих 200-300 млн вон: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Е-9) – 70,8%;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Е-7) – 50,5%; Иностранцы по браку (F-6) – 46,6%; Работники по визе Н-2 – 44,9%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зарабатывающих свыше 300 млн вон: Постоянные резиденты (F-5) – 55,2%;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Е-7) – 46,5%;...

<중략,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정 위한 영양교실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와 광주시보건소 협력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광주시보건소가 협력하여 진행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양 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과 한국 식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3월 21일 광주시 자연채푸드팜센터에서 진행됐다. 총 18명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참가한 이번 영양 교실에서는 ▲한국 상차림 이해 ▲안전한 식품 구매 및 보관법 ▲한국 대표 음식 조리 실습(돈육매실청간장볶음, 배추겉절이) 등을 배우며, 실생활에서 유용한 영양 정보를 익혔다. 강의는 광주 시보건소의 영양 담당자가 진행했으며,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이해를 돕

기 위해 광주시가족센터 소속 통.번역사가 함께해 참가자들은 언어 장벽 없이 한국 식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국 식문화를 더 쉽게 이해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한국의 식문화를 배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양 교실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킬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영의 기자

손 씻기로 감염병 예방 홍보

광주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 생생정보 코너에 손 씻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체 영상을 제작해 송출했다.

또한, 시민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교육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해 안내했다. 아울러,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등 시 행사에서도 손 씻기 체험활동 홍보부스를 운영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손 씻기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올바른 손 씻기 교구인 뷰 박스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뷰 박스란,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 씻기 전과 후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교구로 무상으로 대여해 직접 체험하는 교구로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감염병대응팀으로 전화 신청 후 방문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이외에도 감염병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손 씻기 교육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호 보건소장은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실천하면 감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호흡기 질환,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영유아도 이용해요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한산성 본관 운영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남한산성 본관(누림과 자람터)의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개관한 광남 분관(광남도담터)의 주말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누림과 자람터의 나무누림터는 친환경목으로 구성된 유아 놀이체험실로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 중심의 공간이다.

품질 검증을 거친 안전한 놀잇감을 제공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쓱쓱자람터는 KC 인증마크를 받은 놀잇감으로 꾸며진 영아 놀이체험실이다.

영아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장난감을 제공하며 신체 발달과 창의력 증진을 돕는다.

이와 함께 장난감도서관대여실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전통식 및 현대식 백일상, 첫 돌상 등 총 11가지 품목과 대형 장난감부터 작은

장난감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센터는 토요일 운영에 따라 평일에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할 기회를 제공하며 직장인 부모들에게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과가정이 양립되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주말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모 교육 및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해 더 많은 양육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토요일 운영 확대를 통해 양육자들이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양육자들 간의 교류 기회가 생기면서 지역사회 유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전문상담원과 함께 하는 맞춤형 가족상담

- 누구 : 심리상담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일상 스트레스, 의사소통 어려움, 대인관계 갈등 등)

- 언제 : 월요일~목요일(09:00~18:00)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운영(18:00~21:00)

- 비용 : 1회당 10,000원

(2025.4.1. 부터 유료화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 031) 798-7138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양평군, 안전한 출산 등 지원 위해 마련



양평군은 분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임산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양평군 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교통비 바우처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및 분만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이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도기적 대안”이라며 “앞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 임신·출산·태교 교실 모집

양평군 보건소는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태교를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2025년 상반기 임신·출산·태교 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4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1·2강은 산후조리 및 모유 수유 교육으로, 양평군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에게 문자로 전달되며, 유

튜브 강의로 진행한다. 또한, 3강은 태교의 의미 및 DIY 바느질 태교 교실로, 선착순 40명 신청을 통해서 DIY 바느질 태교 재료(토끼 딸랑이)가 자택으로 배송되며,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2주간 교육할 수 있다.

양평군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음식물쓰레기 RFID 지원사업

양평군,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등 기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관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출하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는 양념과 국물로 인해 생활폐기물 중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로, 이를 줄이는 것은 폐기물 감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저울과 무선 모뎀이 장착된 장비로, RFID 태그를 인식한 후 배출하면 해당 세대의 배출 정보와 무게(g)가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수집되며, 이어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양평군은 2023년도부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기준 10개 공동주택에 64대의 종량기를 설치해 지원하였다.

2024년에 종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배출해야 했는데, 이 방식은 미관상 좋지 않고 여름철 악취와 벌레가 많이 모여들어 관리가 힘들었다. 하지만 RFID 종량기를 도입한 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2025년에는 10대의 종량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신청한 공동주택의 현장 확인 후 설치가능여부를 1차로 검토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와 함께 종량기를 설치한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 환불도 진행된다.

이는 RFID 종량기 설치로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신규 설치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 세대도 포함해 진행하여 종량기 도입 세대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신청 기간은 2025. 4. 7(화)부터 2025. 4. 30(수)까지 진행되며, 봉투 환불은 2025. 3. 31(월)부터 2025. 11. 28(금)까지 진행된다.

사업별 공고문과 신청서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양서육아나눔터 로컬재료를 활용한 비건베이킹!

장소	양서경기육아나눔터
대상	유아(6~7세) 자녀를 둔 양평군민 8가정
일정	4월16일(수)~5월7일(수)매주수요일 4회기(16:00~17:00)
모집기간	3월 24일(월)~4월 4일(금)
프로그램	1회기-생과일바나나푸딩만들기/2회기-우리밀소금빵샌드위치/3회기-쌀로만든 크로플꾸미기/4회기-수제곤약젤리만들기
접수방법	양평군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로컬재료를 이용한 비건 베이킹(선착순접수) *보호자, 자녀 모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경기육아나눔터 전담원 070-7865-3322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경기육아나눔터 간접부모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체육

일정 : 4월 26일 (토) 회기-10:30 / 2회기-13:30
장소 : 강상경기육아나눔터 (강상다목적회관 1층)
대상 : 6,7세 자녀를 둔 16가정(선착순모집)-회기만 신청가능
프로그램 : 하이파이브/에어사다리/패러슈트협동놀이/영어미술쇼
접수날짜 : 4월 2일(수)~4월 10일(목)
접수방법 : 양평군 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아빠와 함께하는 영어체육
(아빠와 자녀 같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중복신청불가
문의 : 경기 육아나눔터 전담원 070-7865-3322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가족합창단의 하모니 지역사회에! 하남시가족센터, 가족합창단 신입단원 오디션 개최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남시가족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가화만사성 가족합창단 오디션을 진행했다.

가화만사성 가족합창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하남시 거주 노래를 좋아하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합창단을 모집했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가족합창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21번의 합창 정기연습을 통해 가족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하며 지역주민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하반기 노래 재능기부 활동도 참여하게 된다.

오디션은 신규 4가정(11명)과 기존 8가정(15명), 4명의 심사위원이 함께했으며 참가한 4가정 모두 2025년 가화만사성 가족합창단에 입단했다.

오디션 진행과 더불어 합창단을 소개하고 올해 활동

내용을 안내하며 신규 참가자들이 합창단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됐으며, 신규가정이 기존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을 느껴보는 기회가 됐다.

문병용 센터장은 “합창 활동은 목소리와 호흡을 통해 재능을 성장시키고 조화를 배우는 긍정의 효과가 있다”라며 “하반기 계획된 다문화가족합창단 가화만사성 ‘다가치 하모니’의 지역사회 내 노래 재능기부는 참여가정은 물론 가족합창단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화만사성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내릴 힘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새 출발~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8명 강사 위촉식 진행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1일 하남시가족센터 3층 두드림실에서 2025년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이해교육사업 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강사가 되어 하남시 관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모국 문화를 소개하고 여러 체험을 통해 아

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총 4개국 8명의 결혼이민자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로 위촉해 총 150회기 교육할 계획이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강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 나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아직 강사로서 경험은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모국 문화를 재미있게 알려줄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가족센터는 하남시 관내 아동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에 힘쓰고자 2020년부터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외에도 지역 내 문화체험, 캠페인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꿈 키워 미래인재성장 프로젝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새 학기 입학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이해를 확장하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초등대상 오후 2시부터 3시30분, 중등대상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고등대상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연령별 6명씩 하남시가족센터 4층 두드림실과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적응력 쑥쑥, 사고력 쑥쑥’(2월 25일~28일)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슬기로운 진로탐험대_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나’(2월 18일~21일) ▲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슬기로운 진로탐험대-나의 인생지도’(2월 17일~20일)가 단계별로 운영됐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유치원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독서 및 표현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진로상담전문가와 함께 자기 탐색, 직업 세계 이해, 진로심리검사 및 해석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문의 031-793-2993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자녀학습지도 과정’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한국어 중·고급반과 토익 시험대비반, 자녀학습지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자녀학습지도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지도와 더불어 학력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4월과 8월에 진행되는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초·중·고등 교과 과정을 학습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응시 원서 접수 도움 등을 받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이용자 김 모 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수업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지 못해 속상했는데, 수업에 참여하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었다.”라며 “현재 중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센터 덕분에 초·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영의 기자

Gyeonggi Province to Investigate Immigrant Living Conditions and Establish Customized Policies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the 12th that it will be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the country to conduct an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s living in the province and establish a customized social integration policy. As of last year,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Gyeonggi Province was 809,801, the largest in the country, but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differently by region and sector, so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Accordingly, Gyeonggi Province plans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living conditions,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through this survey and establish a Gyeonggi-style social integration policy.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The survey targets more than 500 foreign residents in each Gyeonggi-do region and includes various areas such as ▲level of social integration ▲difficulties faced by immigrants in living in Korea ▲policy awareness and service use experience ▲necessary support policies. In particular, we plan to intensively analyze key items such as communication, safety, labor, education, housing, health and welfare, and social contribution and use them as basic policy data, and sh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with 31 cities and counti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yeonggi Province's social integration policy. Gyeonggi Province plans to develop a survey form this month, complete the actual situation survey and policy

development by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establish a sustainable social integration model through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Since Kim Won-gyu,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took office, Gyeonggi Province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to practically support the human rights, social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Regarding this survey, Lee Moon-hwan,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Support Division, said, “We will secure objective and quantitative data to strengthen customized support policies for immigrants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immigrants and local communities.”
과과야스토리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캐릭터 공모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3월 24(월)부터 5월 19일(월)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아이돌보미와 사업 담당자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이용수기’ 부문과 ‘홍보 캐릭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서비스 이용 가족,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센터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용수기’ 부문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돌봄 활동 소감 등을 수필, 편지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홍보 캐릭터’ 부문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에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제출해야 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요강과 전년도 수상작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5월 19일(월)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02-3479-7686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жизни иммигрантов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경기도, 이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 что впервые сред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проведёт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ирования и иммигрантов», чтобы понять условия жизни 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гионе, и разработ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олитику. (На фото: Департамент поддержки и им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участвует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 раздаче зимних пальто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Фото: Кёнгид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год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составило 809 801 человек —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 стране. Однако политика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ирования иммигрантов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гиона и сферы, что создаё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х мера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охватит условия жизни, занятос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 участие иммигрантов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чтобы разработать политику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ир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особенности региона. Опрос будет проведён среди более чем 500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Кёнгидо, и охватит такие аспекты, как: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иммигранты в Корее; ▲Осведомлённость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

тике и опы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коммуникац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жиль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а также вкладу иммигрантов в общество. Полученные данн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итик и, а также переданы в 31 город и уезд Кёнгид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мер по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разработать опорные материалы в этом месяце, завершить исследование и разработку политик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а затем,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о-

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экспертами, создать устойчивую модель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 момента назначения Ким Вонгю главой Департамент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Кёнгид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для ре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한글 지난호 1면> Касательн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оддержки им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Ли Мунхван, отметил: «Мы обеспечим объективные и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данные для усилени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и иммигрантов и создания среды для их гармонич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с мес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가족이 함께해 더 달콤한 딸기 체험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진행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4일 16~22년생 자녀를 둔 20가족(총 40명)과 함께 3월 가족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가족놀이터는 ‘딸기수확체험’을 주제로, 향긋한 딸기 내음이 가득한 영원농장에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시작에 앞서 딸기를 안전하게 따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별로 정해진 구역에서 여유롭게 수확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탐스럽게 익은 설향 딸기를 직접 따며 500g씩 수확했고, 이후 농장 내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농장 대표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신선한 딸기를 마음껏 맛보며 마치 딸기 파티에 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체험을 마친 가족들은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 편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좋았다. 무엇보다 신선한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 아이가 정말 행복해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딸기를 따는 재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신나게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4월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으로 ‘드로잉&온수풀&키즈카페’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사회 적응 도움 한국어교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7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원활한 학업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교실 대상자들은 장소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자.모음 기초부터 시작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 표현과 듣기, 말하기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대상자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익히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한 '마음챙김교실' 운영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챙김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 올바른 정신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 습득과 정신건강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는 2023년부터 ‘마음챙김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2개교 3천327명의 학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음챙김교실’은 △정신건강의 이해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정신건강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에도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신청 학교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서달영 소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58-981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미용사 자격증 취득, 내일 향해 GO!

평택시가족센터,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반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0일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에는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해 미용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총 6개월간 72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들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미용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미용 기술을 배워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다. 실습 중심의 교육이 많아 배우는 재미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기술을 익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과정 수료 후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교육팀(031-615-395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6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시작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 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희망 날개’를 진행해요.

이 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존에 위협 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때 의료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예요.

지원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응급·중증 의료비 최대 500만원, 출산 관련 의료비 최대 300만원, 소액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 필수예방접종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요. 다만 응급·중증 건은 사례에

따라 지원금액을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해요.

올해는 먼저 12월까지 접수를 받지만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돼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례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위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의 15개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어요.

협약을 체결한 각 교구 이주사목위는 신청을 원하는 이주민들을 진료병원, 이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에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에요.

기관을 통해 접수를 받으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

회는 매월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진료병원에 의료비를 송금할 예정이에요.

서울 이주사목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사회적·물리적 폭력과 범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은 이 아이들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생명의 수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문의 02-953-0468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사업 '희망날개' (중국어 하단, 태국어 하단, 베트남어 24면, 영어 36면) 파파야스토리

社会福利共同募捐会与天主教移民牧灵委员会,开展未登记移民儿童医疗费支援项目

社会福利共同募捐会与首尔大教区移民牧灵委员会 (委员长: 刘尚赫神父)正在推进‘未登记移民儿童健康成长发展的医疗费支援项目——希望之翼’。

该项目是为了增进因没有得到健康保险优惠而面临生存威胁的未登记移民儿童的健康权而支援医疗费的项目。支援未登记的移民儿童及时得到医疗支援,健康成长和生活。

支援对象为 6岁以下未入学的未登记移民儿童,重症医疗费最多500万韩元,生育相关医疗费最多300万韩元,小额医疗费最多100万韩元,必需预防接种最多30万韩元。但是急救、重症可以根据情况提高支援金额。

今年的申请受理将持续至 12月,整个项目计划运行三年,至2027年。个人无法直接申请,必须通过具备个案管理能力的全国相关机构提出申请。

为推进该项目,首尔大教区移民牧灵委员会今年2月已与全国15个教区的移民牧灵委员会签订了合作协议(MOU)。

签约的各教区移民牧灵委员会将帮助希望申请的移民儿童与指定医院、移民庇护所等相关机构建立联系,并介绍申请书的填写方法。

当各机构提交申请后,首尔大教区移民牧灵委员会将在每月初召开审议委员会,选定支援对象,并直接向指定

医院汇款支付医疗费用。首尔移民牧灵委员会主席刘尚赫神父介绍该项目的推进背景时表示:

“处于福利盲区的未登记移民儿童,不仅失去了接受教育的机会,还常常得不到免受社会及身体暴力、犯罪侵害的保护,更无法获得适当的医疗保障。”

“本次项目的核心目标是全力保护这些孩子的生命’。作为教会,‘守护生命’是我们最重要的精神之一,因此这一项目具有极其重要的意义。”

咨询电话: 02-953-0468 未登记移民儿童支援项目‘希望之翼’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เริ่ม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อายุต่ำกว่า 6 ปี”

มูลนิธิชุมชนเกาหลีแล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ของ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โซล (ประธานบาทหลวง ยู ชังฮยอก) กำลัง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 “ปีกแห่ง ความหวังซึ่ง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เพื่อ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และพัฒนาการที่สมบูรณ์แข็งแรงของเด็กผู้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โครงการนี้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เพื่อส่งเสริมสิทธิด้านสุขภาพของ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ซึ่งความอยู่รอดของพวกเขาตกอยู่ในอันตรายเพราะไม่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เพื่อสนับสนุนให้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อย่างทันทั่วถึงเพื่อให้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และใช้ชีวิตอย่างมี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

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ได้แก่ 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ซึ่งมีอายุต่ำกว่า 6 ปี และไม่ได้เข้า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 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และวิกฤตสูงสุด 5 ล้านวอ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สูงสุด 3 ล้านวอ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

พยาบาลเล็กน้อยสูงสุด 1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ฉีดวัคซีนที่จำเป็นสูงสุด 300,000 วอ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และวิกฤต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อาจเพิ่มขึ้นขึ้นอยู่กับแต่ละกรณี

ปีนี้การรับสมัครจะเปิดถึง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 แต่โครงการจะดำเนินไปเป็นเวลา 3 ปีจนถึงปี 2027

บุคคลทั่วไปไม่สามารถยื่นสมัครได้ ต้องให้หน่วยงานทั่วประเทศที่สามารถดูแลกรณีศึกษาเป็นผู้ยื่นสมัครแทน

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ของ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โซลได้ลงนามข้อตกลงทางธุรกิจ (MOU) กับ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ของสังฆมณฑล 15 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เมื่อ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ที่ผ่านมา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คาทอลิกของแต่ละสังฆมณฑลที่ลงนามในข้อตกลงมีแผนที่จะเชื่อมโยงผู้ย้ายถิ่นที่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กับองค์กร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ช่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 และที่พักพิงผู้ย้ายถิ่น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และให้คำแนะนำเกี่ยวกับวิธีการ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สมัคร เป็นต้น

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สมัครผ่านทางหน่วยงาน ทา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ดูแลผู้ย้ายถิ่นคาทอลิกของ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โซลจะจัดการประชุ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พิจารณา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เพื่อเลือกผู้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 จากนั้นจึงส่ง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ไปยั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

บาทหลวง ยู ชังฮยอก ประธ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กรุงโซล กล่าวถึงภูมิหลัง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ว่า“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ซึ่งตกอยู่ในจุดบอดของสวัสดิการ อีกทั้ง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จาก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งทางสังคมและทางกายภาพ รวมถึ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นอกจากนี้ พวกเขายังมักไม่ได้รับ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อย่างเหมาะสมอีกด้วย” และเผยว่า “โครงการนี้มุ่งหวังที่จะปกป้อง “ชีวิต” ของเด็ก ๆ เหล่านี้โดยทั่วถึง และเนื่องจากจิตวิญญาณที่สำคัญที่สุดประการหนึ่ง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คือการปกป้องชีวิต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โครงการนี้จึงยิ่งใหญ่มาก”

สอบถาม 02-953-0468 “ปีกแห่งความหวัง” 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필라테스로 다양한 가족, 건강 챙겨요
평택시가족센터 다가ON, 필라테스 프로그램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ON에서는 지난 3월 12일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12명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과 신체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 근력, 자세 교정과 다문화-지역주민 간 소통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도구 필라테스는 기본적인 필라테스 운동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균형 감각을 향상하고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지

역주민들은 평소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얻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다문화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ON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청년 창업 응원한다!
최대 1000만원 사업화 지원금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창업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선다. 평택시는 2025년도 ‘평택청년 우수 초기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며,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발돋움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평택시를 기반으로 창업한 청년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또한 평택시인 창업 3년 이내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기업)이다.

평택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우수 초기 창업자를 선정하고, 각 기업에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과 지원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18일(금)까지다. 지원 방법 및 세부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정책과로 전화(031-8024-3571) 문의도 가능하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Bắt đầu hỗ trợ phí y tế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dưới 6 tuổi”

Quý cộng đồng phúc lợi Hàn Quốc và Ủy ban mục vụ di dân của Tổng giáo phận Seoul (Chủ tịch là Cha Yoo Sang-hyeok) đang thực hiện dự án ‘Đôi cánh hy vọng’,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dự án hỗ trợ phí y tế dành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Đây là dự án hỗ trợ phí y tế nhằm thúc đẩy quyền chăm sóc sức khỏe dành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những trẻ em hiện đang có nguy cơ bị đe dọa đến tính mạng vì không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về bảo hiểm y tế. Mục đích của dự án này là hỗ trợ về mặt y tế một cách kịp thời dành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nhằm giúp các em có thể phát triển và trưởng thành một cách khỏe mạnh.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dưới 6 tuổi chưa nhập học, với mức hỗ trợ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nghiêm trọng tối đa là 5 triệu won, phí sinh nở tối đa là 3 triệu won, phí điều trị nhỏ lẻ tối đa là 1 triệu won, và phí tiêm phòng cơ bản tối đa là 300.000 won. Tuy nhiên,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và nghiêm trọng, số tiền hỗ trợ có thể được tăng lên tùy theo từng trường hợp.

Năm nay, dự án sẽ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đến hết tháng 12, và sẽ được kéo dài trong 3 năm cho đến năm 2027.

Các bạn không thể tự đăng ký, mà cần phải đăng ký thông qua những cơ quan hỗ trợ thực hiện dự án.

Hiện tại, Ủy ban mục vụ di dân Tổng giáo phận Seoul đã ký kết thỏa thuận hợp tác (MOU) với các Ủy ban mục vụ di dân của 15 giáo phận trên toàn quốc vào tháng 2 vừa qua.

Mục vụ di dân tại mỗi Giáo phận được ký kết thỏa thuận sẽ có kế hoạch kết nối những người nhập cư muốn đăng ký với các cơ quan liên quan như bệnh viện, mái ấm tình thương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bên cạnh đó cũng sẽ hướng dẫn việc viết hồ sơ, v.v.

Khi đăng ký qua các cơ quan, Ủy ban mục vụ di dân Tổng giáo phận Seoul sẽ tổ chức các cuộc họp ủy ban đánh giá vào đầu mỗi tháng để tiến hành

việc tuyển chọn đối tượng hỗ trợ và sau đó sẽ gửi phí y tế đến các bệnh viện mà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đang nhận điều trị.

Cha Yoo Sang-hyeok, chủ tịch Ủy ban mục vụ di dân Seoul, cho biết về bối cảnh của dự án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là những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hưởng phúc lợi xã hội và thường không được bảo vệ khỏi những vấn nạn bạo lực xã hội, thân thể cũng như tội phạm, chưa kể đến việc các em không có cơ hội được nhận quyền lợi về giáo dục, cũng như các chế độ phúc lợi y tế phù hợp. Dự án này nhằm mục đích bảo vệ một cách toàn diện về mặt ‘đời sống’ của các em, vì một trong những tinh thần quan trọng nhất của chúng ta là bảo vệ sự sống, nên nhu cầu cho dự án này là rất lớn”.

Các bạn có thể liên hệ đến 02-953-0468 Dự án hỗ trợ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Đôi cánh hy vọng’ để biết thêm chi tiết nhé ~

〈한글 기사 2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2025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2025.3.24(월)

~4.18(금) 17:00

다문화 자녀 학업장학 (초·중·고)

I 지원대상 및 자격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과정 다문화 자녀'

신청자 기준,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가족 및 새터민(탈북자) 지원 불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상세기준 선발요강 참조)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정부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II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구분	다문화자녀 학업장학		
	초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선발 인원	320명	300명	280명
장학금 (1인)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장학생 선정자에 한해 2회 분할 지급(7월/10월), 장학금 사용보고서 필수 제출(9월/11월)

III 장학금 신청방법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생 신청서, 자기소개서 작성

추천서 수령

서류 업로드 (파일 첨부)

IV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수상 실적 자료 등

V 선정발표

2025년 6월 10일(화) 예정

VI 문의사항

☎ 02-6424-1801~1804

☎ 02-6424-1801~1804

☎ 02-6424-1801~1804

반드시 상단의 '2025년 장학금 선발요강'과 '신청 안내 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선발은 ☎ 02-6424-1801~1804 와 함께합니다.

☎ 우리금융그룹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5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2025.3.24(월)

~4.18(금) 17:00

다문화 자녀 학업장학 (대학)

I 지원대상 및 자격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한 '대학생 다문화 자녀'

- 신청자 기준,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가족 및 새터민(탈북자) 지원 불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상세기준 선발요강 참조)
- 국내 2·3·4년제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 현재 학기(2025년 1학기) 포함, 졸업까지 3학기 이상 남아야 함
- 매월 1회 이상 장학금 서포터즈 '우리누리' 활동에 필수 참여해야 함

II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총 50명 | 장학금 1인 500만원

- 장학금 선정자에 한해 2회 분할 지급(7월/10월), 장학금 사용보고서 필수 제출(9월/11월)

III 장학금 신청방법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생 신청서, 자기소개서 작성

추천서 수령

서류 업로드 (파일 첨부)

원본 서류 우편 발송

IV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재학(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수상 실적 자료 등

V 선정발표

2025년 6월 10일(화) 예정

VI 문의사항

☎ 02-2125-2120~4

☎ 02-2125-2120~4

☎ 02-2125-2120~4

반드시 상단의 '2025년 장학금 선발요강'과 '신청 안내 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그룹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주의사항

✓ 허위·미끼매물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에서 실매물인지 확인하세요

구매후고자 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해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차량정보, 평균매매금액,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세요.

✓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이력, 침수이력을 확인하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을 통해 중고차 성능·상태를 점검하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내용 뿐 아니라 시운전, 차량외관 확인 등을 통해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 확인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세요

매매 계약시에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작성하고, 구두약속도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세요.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 비용은 구분해 기재하고,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소비자24

24시간 합선 소비자포털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개설

☎ 010-4257-7722

예기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민이 있을 때 마음 편히 전화 주세요.

지원 대상 : 가족 등으로부터 고립되어 임신·출산·유기·입양 등 출산과 양육 포기를 고민·갈등하고 있는 임신부

안심상담 및 연계지원

안심상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교육·취업·보호(주거)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연계

연계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교육·취업·보호(주거)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연계

경기도가 안심상담 핫라인으로 위기임산부와 함께하겠습니다.

☎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010-4257-7722

“아버지교육, 양육 참여 높여요”

평택시가족센터, ‘아빠찬스: 똑똑한 아버지 되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5일, 20일, 22일 지역 내 자녀를 둔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아빠찬스: 똑똑한 아버지 되기’ 아버지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성영 센터장은 “최근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버지들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긴장을 풀고,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육아 팁,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법, 학습 코칭,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배움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빠로서 많은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육아에 대한 실용적인 팁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영의 기자

‘가족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2025년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21일(금)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김성민 가사조사관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 교섭 상담위원 윤향숙 소장을 초빙하여 ‘면접 교섭의 개념 이해, 중재 기법 및 면접 교섭의 실제’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면접 교섭에 대한 개념과 운영 방식, 면접 교섭 서비스 대상자별 개입 기법, 면접 교섭 서비스 갈등 중재 기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가족상담사들은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혼가정 상담과 면접 교섭 장면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담 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면접 교섭 서비스는 비양육부모(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양육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 지원, 면접 교섭 협의 사항 등을 중재하는 서비스로 비양육자 및 양육자 상담, 양육·놀이 코칭 등을 지원한다.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거나 안전한 면접 교섭 장소가 없을 경우, 놀이와 양육 코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평택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가족센터는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행복파트너로서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상담은 전화(031-647-3097) 또는 방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변화의 중심
가정의 경기

평택시

✦ 2025년 경기동아리활성화지원사업 ✦

글빛,
캘리그래피
동아리

캘리그래피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캘리그래피를 통해 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보아요

참여안내

대상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10명

일시

2025년 4월 17일 ~ 10월 20일
매월 셋째주 목요일 (월 1~2회)

내용

캘리그래피 9회 활동, 전시회 1회

장소

다가온(평택2로 125, 1층 다가온)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글빛,캘리그래피동아리'신청

참가비

1인 2만원

문의전화

031-692-2461

* 모집인원 중 다문화가족 8명, 비다문화가족 2명 구성

* 동아리 일정은 변동 가능 있음.

* 동일 국적 최대 2명 제한. 단, 인원미달시 제한없이 신청 가능

평택시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아버지교육 & 아버지활동 연간 운영 계획

아버지교육

아버지활동

1 육아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 육아법

대상: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일시: 2025.03.15.(토) 10:00-12:00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7호

2 내 아이를 위한 요즘 아버지의 역할

대상: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일시: 2025.03.15.(토) 13:00-15:00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7호

3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 배우기

대상: 예비 아버지 10명
일시: 2025.03.20.(목) 19:30-21:30
장소: 비대면 ZOOM교육

4 요즘 남편, 요즘아빠의 트렌드한 육아법

대상: 예비 아버지 10명
일시: 2025.03.22.(토) 10:00-12:00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다가온 2층

5 현명한 아빠의 행복한 가족 리더십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일시: 2025.03.22.(토) 13:00-15:00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다가온 2층

1 영유아기 자녀 ♥ 아버지 체험활동

대상: 영유아기 자녀와 아버지 (10가족/20명)
일시: 2025.04.05.(토) 09:50-12:40(다들 1시간 20분)
장소: 고마워 토트(삼계동농산물)

2 아동기 자녀 ♥ 아버지 체험활동

대상: 아동기 자녀와 아버지 (10가족/20명)
일시: 2025.04.12.(토) 10:30-12:30
장소: 스포츠센터 스포츠 놀이대

3 청소년기 자녀 ♥ 아버지 체험활동

대상: 아동기 자녀와 아버지 (10가족/20명)
일시: 2025.04.26.(토) 10:00-12:00
장소: 낚시헌터(삼계동농산물)

4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 아버지 체험활동

대상: 1그룹-영유아기 자녀와 아버지 (10가족/20명)
2그룹-아동기 자녀와 아버지 (10가족/20명)
3그룹-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 (10가족/20명)
일시: 2025.05.24.(토) 9:30-17:30(다들 2시간)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조리실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06

♥ 다음 정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모두·함께·다같이 뽐내요

용인시민 누구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경연대회

참가 신청 기간

2025. 03. 04.(화) ~ 04. 14.(월)

참가 자격

용인시민 누구나 (외국인, 다문화 가족, 내국인 등)

경연 주제

자율주제 (K-POP 댄스, 노래, 모국의 노래 및 전통 춤 등)

경연 일정

예선: 2025. 04. 26.(토) 10:00~
본선: 2025. 05. 18.(일) 12:00~ (본선 합격자는 별도 연락)

시상 내역

대 상: 1명 (5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1명 (3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2명 (10만 원 상당 상품권)
인기상: 1명 (소정의 상품)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isc2020@naver.com
방문 접수: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36, 거성빌딩 3층 301호 (김량장동)
문의 전화: 031-337-3055~7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yisc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Yongin Immigrant Support Center

LỄ HỘI KỶ NIỆM NGÀY THẾ GIỚI NĂM 2025

CÙNG NHAU TRANH TÀI

Cuộc thi nơi mọi cư dân thành phố Yongin có thể tỏa sáng với tài năng của mình

Thời hạn đăng ký tham gia

04.03.2025 (thứ 3) ~ 14.04 (thứ 2)

Đối tượng tham gia

Tất cả cư dân thành phố Yongin (người nước ngoài, gia đình đa văn hóa, người bản địa, v.v.)

Chủ đề biểu diễn

Chủ đề tự do (Nhảy K-POP, hát, hát và múa truyền thống quê hương, v.v.)

Lịch biểu diễn

Vòng sơ tuyển: 10:00 ngày 26.04.2025 (thứ 7)
Vòng chung kết: 12:00 ngày 18.05.2025 (chủ nhật)
(Những thí sinh vượt qua vòng chung kết sẽ được liên hệ riêng)

Nội dung trao giải

Giải nhất: 1 người (phiếu quà tặng trị giá 500.000 KRW)
Giải nhì: 1 người (phiếu quà tặng trị giá 300.000 KRW)
Giải khuyến khích: 2 người (phiếu quà tặng trị giá 100.000 KRW)
Giải yêu thích: 1 người (phần quà nhỏ)

Cách thức đăng ký

Nộp qua email: yisc2020@naver.com
Nộp trực tiếp: Số 301, tầng 3, tòa nhà Geoseong, 36 Geumnyeong-ro, Cheoin-gu, Yongin-si (Gimnyangjang-dong)
SĐT liên hệ: 031-337-3055~7

Tài đơn đăng ký tham gia

Trang web Trung tâm Phúc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Thành phố Yongin > Góc thông tin > Thông báo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yisc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Yongin Immigrant Support Center

2025年世界人民日纪念庆典

我们一起绽放自己吧

龙仁市民任何人都能展示才艺的竞赛

申请时间

2025.03.04.(星期二) ~ 04.14.(星期一)

参赛资格

龙仁市民任何人 (外国人, 多文化家庭, 本国入等)

竞赛类型

自由 (K-POP, 舞蹈, 唱歌, 本国歌曲或者传统舞蹈等等)

比赛日程

预选: 2025.04.26(星期六) 10:00~
决赛: 2025.05.18(星期日) 12:00~
(决赛合格者将另行通知)

奖项设置

大奖: 1名 (价值50万韩币的商品券)
优秀奖: 1名 (价值30万的商品券)
鼓励奖: 2名 (价值10万的商品券)
人气奖: 1名 (相应奖品)

申请方法

电子邮件报名: yisc2020@naver.com
现场报名: 龙仁市处仁区金陵路 36, 巨星大厦3楼301号(金良场洞)
咨询电话: 031-337-3055~7

下载参赛申请表

龙仁市外国人福利中心 官网 > 信息广场 > 公告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yisc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Yongin Immigrant Support Center

2025년 WORLD PEOPLE'S DAY CELEBRATION FESTIVAL

LET'S SHOW OFF TOGETHER

A contest where anyone in Yongin can show off their talents

Application period

2025. 03. 04.(TUES) ~ 04. 14.(MON)

Eligibility

Any citizen of Yongin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ies, domestic citizens, etc.)

Contest theme

Free subject (K-POP dance, song, native country song and traditional dance, etc.)

Contest Schedule

Preliminary: 2025. 04. 26. (Sat) 10:00~
Main: 2025. 05. 18. (Sun) 12:00~ (Those who pass the main round will be contacted separately)

Award details

Grand Prize: 1 person (500,000 won gift certificate)
Excellence Prize: 1 person (300,000 won gift certificate)
Encouragement Prize: 2 people (100,000 won gift certificate)
Popularity Prize: 1 person (selected product)

How to apply

Email reception: yisc2020@naver.com
Visit reception: 36 Geumnyeong-ro, Cheoin-gu, Yongin-si, 3rd floor, 301, Geoseong Building (Kimryangjang-dong)
Inquiry phone number: 031-337-3055~7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yisc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Yongin Immigrant Support Center

일자리센터 내 외국인 전담 창구

용인 거주 F2·4·5·6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일자리센터(기흥구 강남로3)에 외국인 전담 일자리상담 창구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기준 등록 외국인이 2만명을 돌파한 데다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용인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

착을 돕고자 전담 일자리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용인에 거주 중인 F2, F4,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이라면 사전 예약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시일자리센터로 방문하면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F2·4·5·6비자 소지자) 채용이 필요한 업체도 용인시일자리센터(031-289-2262~9)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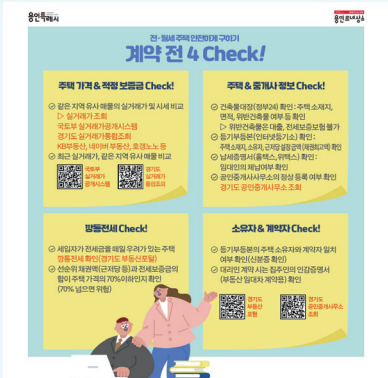
향후 용인시일자리센터는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채용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구인 업체를 위해 용인시일자리센터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확인

용인시 홈페이지 ‘안심 자가 진단 프로그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주택을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시 정보가 부족해 불안정한 계약을 하거나 계약 후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계약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후, 문제 발생 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 정보제공 기관이나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으로 연결되는 QR까지 삽입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을 만들었다.

또 시민들이 계약 전 스스로 대상 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심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15개 항목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에 대한 계약 안전성을 사전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안내문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분야별정보> 도시> 주택·건축> 주택정보안내>’ 게시판으로 들어오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시민이라면 사전에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확인하고 자가 진단 프로그램으로 대상 주택의 계약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전월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건강돌봄 : 한 땀, 1 땀 - 미싱 클래스



모집기간 2025.03.25.(화) 09:00 ~ **선착순 마감시 (신규우선)**

모집대상 '용인시 거주 1인가구' (증빙서류 필수) 15명

4월 17일 (목) 19:00~20:30

4월 24일 (목) 19:00~20:30

*** 2회기 모두 참여 가능자 우선!**

아이소잉 (미싱 공방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24 B1,
분당선 기흥역 1번출구 도보)

활동내용 미싱 / 호텔식 베개커버, 키친크로스 제작

신청 문의 070-7477-8546 / 카카오톡채널 '용인시1인가구'



*원단 수급 상황에 컬러 및 패턴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QR]



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

가정

지속가능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찾아가는 임대농업기계 이용해”

용인시, 농업인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이 임대농업기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데,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는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간 450건 이상의 농업기계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송한다.

농업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031-6193-1055/1056)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기계를 적기에 제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와 교류 도모 연천군가족센터, 기타동아리 모임 '기타등등' 개강식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량)는 지난 3월 10일 문화소통 프로그램사업으로 ‘2025년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기타동아리 모임 III(기타등등) 개강식’을 진행했다.

기타동아리 모임 기타등등은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

회원들은 통기타 교육을 받으며 연주 실력을 키우고, 자조모임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

년에는 연천군 내에서 기타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 공연 “기타인들이여 모여라”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리마인드 웨딩, DMZ 세계인의 축제, 연천 거리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도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수강생 A씨는 “2025년도에는 아들과 함께 기타를 배우고 공연하는 것이 꿈”이라며 소망을 전했다.

문의 031-835-0093)

송하성 기자

연천군, 청년농업인에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연천군은 오는 4월부터 관내 청년농업인의 주거 안정과 조기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농업인은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전 별도의 청년 독립 가구를 구성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청년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귀농 청년층의 연천군 유입 증가와 관내 청년들의 관외 이탈 방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4월 4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연천군 '똑버스' 대광리역 확장 운행 '마을 설명회'...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 운행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행 지역을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이어 대광리역까지 확대했다. 연천군은 똑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도신리 일부 지역의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똑버스 마을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천군은 지난 6일 도신2리 마을회관, 13일 도신3리 마을회관, 도신4리 할머니회관 및 마을회관에서 4차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에 대한 소개 △똑버스 이용방법 안내 △똑타 앱 설치 및 회

원가입 △똑버스 호출 및 탑승 체험 등 이용대상 주민들에게 똑버스 가입부터 이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 등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천군 똑버스(DRT)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약 32명, 평균 대기시간은 10분으로 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

의 이동편의를 다소 해결해주고 있다고 마을주민 및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이현주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및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2024년 9월 3일부터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수요응답형 버스(스타리아 2대)인 똑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025년 연천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페이스페인팅 동아리 The 페이스#

모집기간 2025. 03. 21(금) ~ 2025. 04. 11(금)
참여대상 연천군 거주 결혼이민자 7명
교육내용 페이스페인팅 동아리
교육비 동아리 모임 자부담 25,000원
교육장소 종합복지관 1층 교류소통공간 '다카온'
교육기간 2025년 4월 ~ 2025년 10월
문의 031-835-0093(가족지원 1팀)

가족상담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상담&심리검사

연천군가족센터에서는 연천군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상담 및 심리검사를 (무료) 지원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 비용	진행 순서
상담 시간 ● 평일 9시~18시 ● 화요일 9시~12시 ● 일요일 9시~17시	● 상담비용 전액 무료 ● 8회기 상담진행 (필요시 회기 연장 가능) ● 전문심리검사 무료	전화신청 ↓ 접수 상담 진행 ↓ 담당 상담사 매칭 ↓ 상담 진행

신청 및 문의: 031-835-0094

연천군가족센터와 함께하는 부모역할지원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모집기간 2025. 3. 25.(화)~2025년 연중
진행일시 2025년 3월 29일(토) 10:00~12:00
진행장소 연천군가족센터 내 교육실 5층
참여대상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부모
교육내용 영유아 자녀 부모 교육
문의 031-835-0093 (가족지원 2팀)

"과천시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며 다가오는 봄을 만끽해요"

시민 체험형 목공소 개소·한방난임치료 참여자 모집·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등

시민 체험형 목공소 개소

과천시 3월 28일 시민 누구나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과천시 나눔 목공소’를 개소했다.

나눔 목공소는 경기도 산림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목재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나눔목공소에서는 4월 1일부터 도마, 책꽂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목공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목공지도사의 안내 아래 진행되며,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과천 시민이면 누구나 과천시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직장인과 가족 단위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프로그램별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나눔 목공소는 단순한 체형 공간을 넘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눔 목공소에서 목재를 통해 자연의 가치를 느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방난임치료 참여자 모집

과천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
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4일
부터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난임 진단서 또는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과천시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지원 대상 기준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과천시 지정 한의원(5개소) 중 원하는 곳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임신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보건소 모자
건강팀(02-2150-3839)으로 하면 된다.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

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임사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
Gwacheon City



과천시
가족센터

6~8세(2018년~2020년생)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품앗이



**이웃의 가정과 그룹을 만들고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놀이, 독서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함께 숲체험도 떠나요!**

문 의 : 503-0070 품앗이 담당자
신 청: 과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세부 일정 (전체일정 필수 참여)

3.15(토) 10:00~12:30 / 과천시가족센터 2층
 -10:00~10:30 품앗이 오리엔테이션
 -10:30~12:30 저자 특강 엄마의 내면의 아이만나기

4.5(토) 10:00~11:30 / 과천시 가족센터 2층
 -(6,7세부모) 자녀의 사회성향상을 돕는 놀이법 교육
 -(6,7세자녀) 사회성향상을 위한 집단놀이

4.12(토) 10:00~11:30 / 과천시 가족센터 2층
 -(8세부모) 자녀의 사회성향상을 돕는 독서법 교육
 -(8세자녀) 사회성향상을 위한 독서활동

5.10(토) 10:00~12:00 / 외부 숲체험 장소
 -품앗이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신나는 숲체험

11.29(토) 10:00~11:30 / 외부 장소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성과공유회
 -가족문화활동진행(요리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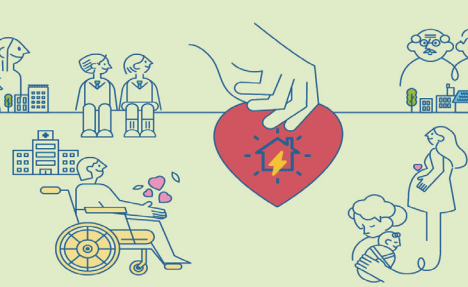
***상기 일정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문의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일러스트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임산부 등)과 중앙에 위치한 손이 집을 상징하는 빨간 하트 안에 에너지바우처 아이콘을 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리랑카 공동체와 문화교류 행사 화성외복, 한국어 수강생도 참여해 다양한 문화 공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3월 23일 센터 1층 로비와 3층 대강당에서 스리랑카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리랑카 공동체 구성원과 한국어 수강생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을 나누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스리랑카 전통 의상, 악기, 생활 물품 등을 전시한 '문화체험존'이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며 스리랑카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또

한, 스리랑카 대표 요리인 프라이드 라이스(닭고기 볶음밥)를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유했다.

행사는 스리랑카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운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센터 이용자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금연지원 캠페인 화성외복, 남부금연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금연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연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 계획을 수립하고,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을 지원받았다. 또한, 금연 성공을 위한 단계별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한 외국인 주민은 “금연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손녕희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가족사랑의날 ESG 챌린지 4

가족愛(애) 패스, 화성愛(애) 골

"화성FC 프로리그 진출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패스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고, 화성에서 행복한 골을 기록하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세요~~

화성FC



VS



전남 드래곤즈

4월 12일(토) 14시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자세히 알아보기



참여자 대상

화성시거주 2인이상의 다양한 가족 15가족
(신규가족 우선참여)



신청기간

2025. 3. 26(수) 10시 ~ 모집완료시까지



신청방법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여자 가족 전원 회원가입 후 신청)
회원가입-로그인-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



관람장소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개별이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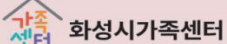
문의

070-8831-3469

*참여자에 한해 확정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가족센터 가족교육의 중심! 화.성.가족행복학교



4월 청소년기 부모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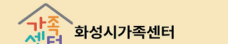
완벽한 부모가 되게 않아도 괜찮아요.
운전한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대 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20명
신청방법	참가비 무료 / QR 신청
문 의	역량강화팀 070-7774-7082



일시	내용	장소	참여 대상	강사명
2025. 4. 2.(수) 10:00~13:00	부모 마음 돌봄 1 나를 알아야 아이가 보인다	유엔아이센터 강의실5	부모 20명	박정린 (서울가족학교 위촉강사 / 양육코치)
	성장형 아이로 키우는 양육 코칭 1 - 부모-자녀 욕구강도검사 기반 -			
2025. 4. 9.(수) 10:00~13:00	부모 마음 돌봄 2 부모 스트레스와 불안 다루기			
	성장형 아이로 키우는 양육 코칭 2 - 자기조절력 / 성(性) / 정서사회성 발달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부모-자녀 사전검사(욕구강도) 실시 예정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

이제 한국 입국할 때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7개 언어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전자입국신고 제도는 왜 하는 거야?:**
현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해요.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 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 2월 24일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예요.

***누가 전자입국신고를 하는 거야?:**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한국에 90일 이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에요. 그밖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①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②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③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④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분간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은 어떻게 해?:**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

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에게 편리해져요.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중국어 3면, 러시아어 6면, 영어 6면, 일본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法務部、「電子入国申告制度」施行...7ヶ国語でホームページで申告可能

法務部は、韓国に入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が入国審査時に提出する入国申告書を、オンライン(電子的)で提出できるようにする「電子入国申告制度」を施行しています。

***電子入国申告制度とは?:** 現在、韓国に入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は、紙の入国申告書を手書きで作成し、入国審査を受ける際に入国審査官に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入国前に事前に提出する方法がなく、空港に到着して手書きで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不便さがあります。

また、入国審査官は、提出された紙の入国申告書の記載事項を確認し、入国審査の際にそれをいちいち直接スキャンしているため、入国審査時間が長くなる要因と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

な不便を解消するため、法務省は昨年から電子入国申告システムの開発に着手し、2月24日から電子入国申告制度を施行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電子入国申告の対象は?:** 入国申告の対象は、主に観光など、韓国に90日以下の短期滞在を目的として入国する外国人です。 その他、長期滞在を目的として入国する外国人も、まだ国内で外国人登録を済ませていない場合は、空港や港で入国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ただし、①有効な電子渡航許可(K-ETA)許可証の所持者 ②国内で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外国人(永住権保持者、国内居所申告者を含む) ③団体(電子)査証の所持者 ④航空機の乗務員などは、入国申告書(電子入国

申告書を含む)の提出が不要です。当面は、紙の入国申告書または電子入国申告書のどちらでもかまいません。

***電子入国申告書の提出方法は?:** 電子入国申告書は、PCまたはスマートフォンから電子入国申告のホームページ(www.e-arrivalcard.go.kr)にアクセス(QRコードでも可能)し、韓国到着3日前から入国審査を受けるまでの間に作成・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

電子入国申告書を提出してから72時間以内に入国しない場合、すでに提出した電子入国申告書は無効とな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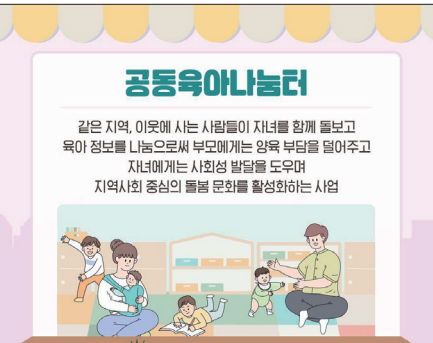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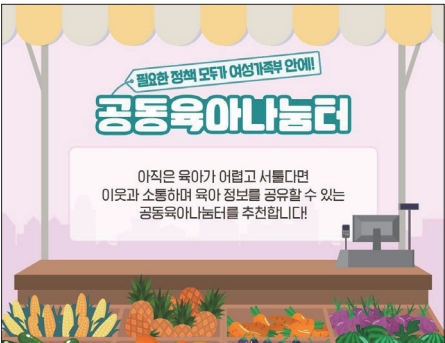
電子入国申告のホームページのメニューは、各個人が使用する「電子入国申告」と、団体で一括入力できる「団体電子入国申告」に分かれており、申

告者数に応じて作成します。

特に、スマートフォンでパスポートの写真と人的事項が記載されているページを撮影して電子入国申告ホームページにアップロードすると、氏名、生年月日、パスポート番号などの情報が自動的に入力されます。電子入国申告のホームページは、韓国語、英語、中国語、日本語、タイ語、ベトナム語、ロシア語バージョンで運営されています。

***電子入国申告の完了確認は?:** 申告書提出者には、電子入国申告書の発行番号と有効期限が記載された「提出完了確認メール」が送信されます。

入国申告書をオンラインで事前に出すと...〈중략,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E-9, E-10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방법, 열렸다!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발표...E-7-4R 비자 신설, 더 많은 혜택 부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부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 까지 2년간 진행돼요.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볼까요?

***뭐가 달라진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외국인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겁니다.

***E-7-4 비자와 E-7-4R 비자는 뭐가 달라?:** E-9, 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기존에도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E-7-4 비자보다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해요.

***E-7-4R 비자가 더 좋은 점은 뭐야?:** E-7-4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E-7-4 근로자의 가족은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E-7-4R 근로자의 동반가족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큰 혜택은 E-7-4R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며 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F-2-R 비자를 받으면 약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E-7-4R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E-9이나 E-10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E-7-4 비자를 받는 요건과 똑같아요. ①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한국어능력 2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다만 E-7-4R 비자 취득 후 살게 되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점만 달라요.

***F-2-R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E-7-4R 근로자가 3년 이상 일한 뒤 F-2-R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기존에는 3급 이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좀 더 어려워졌어요. 다만 F-2-R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은 없었어요.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해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중국어 하단, 태국어 1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

新设E-7-4R签证，给予更多优惠

E-9、E-10持有者在韩国长期居留的途径开通！

具有非专业就业(E-9)、船员就业(E-10)滞留资格的外国人可以在韩国长期滞留。法务部为了克服地区消失危机，谋求地区均衡发展，发表了2025年地区特化型签证运营计划。从今年开始将扩大地区特化型签证对象地区，改编签证制度，让更多的地方自治团体参与地区特化型签证制度。此次地区特化型签证运营将持续到2026年，为期两年。我们来看一下主要改善事项吧。

***有什么变化?:** 最重要的是，被排除在现有地区特化型签证对象之外的非专业就业(E-9)、船员就业(E-10)滞留资格的外国人有了转换为熟练技能人力的方法。此改善是为了让更多的外国人在地方定居。

***E-7-4签证和E-7-4R签证有什么不同?:** 拥有E-9、E-10滞留资格并滞留2年以上的外国人，如果符合条件，也可以获得熟练技能人力(E-7-4)分数制签证。如果居住在人口减少地区的话就可以获得这次新设立的地区特色熟练技能人力签证(E-7-4R)，比E-7-4签证给予更好的优惠。

***E-7-4R签证有什么好处?:** 大家都知道取得E-7-4签证就可以邀请家人

吧？但是E-7-4劳动者的家属不允许在韩国就业。但是E-7-4R劳动者的同伴家属和地区特色优秀人才(F-2-R)的同伴家属一样，可以在人口减少地区或人口减少关注地区从事简单劳动领域的工作。夫妻双方可以合法地一起工作，堪称一大福利！第二个大优惠是，E-7-4R签证持有者在人口减少地区或人口减少关注地区连续工作3年以上的话，可转换为地区特色优秀人才(F-2-R)滞留资格。如果获得F-2-R签证，大约5年后可以申请永久居住权。

***如何才能拿到E-7-4R签证?:** 持有E-9或E-10签证的劳动者获得E-7-4签证的条件相同。 ①必须具备年薪2600万韩元以上并签订2年以上劳动合同②韩语能力具备2级以上。 只是取得E-7-4R签证后需要在人口减少地区或人口减少关注地区生活，这一点不同。

***怎样才能拿到F-2-R签证?:** “E-7-4R劳动者在工作3年以上后，要想获得F-2-R签证，必须获得韩国语社会综合项目第4阶段（韩国语能力考试TOPIK第4级）以上。” 以前要求3级以上，但是现在4级以上，变得更难了...〈중략,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변동사항 없음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 증진 문화더함공간서로,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대한민국' 진행

문화더함공간서로는 지난 3월 16일 문화다양성활동지원 문화소통프로그램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1회차 대한민국 편을 성황리에 마쳤다.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음식을 매개로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문화다양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 주민 12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편에서는 잡채, 해물과전을 함께 만들며 한국의 식문화와 조리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요리를 함께 만들며 한국

의 전통 조리 방식과 식사 예절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각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잡채의 간장 양념이 한국 음식에서 가지는 의미, 해물과전과 비슷한 각국의 전통 부침 요리 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요리 실습을 넘어,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 정체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음식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한편,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프

로그램은 총 5회차로 운영되며, 다음 회차부터는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의 전통 음식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나라의 참가자들이 직접 메인 호스트가 되어 조리법과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욱 입체적인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음식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적 서사를 존중하고, 더 깊이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소상공인 전문 교육생 모집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교육으로,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조직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다루는 ‘전문경영인 육성과정(MINI MBA)’으로 개설된다.

교육은 협성대학교에서 4월부터 6월까지 10주 과정으로 소수 인원인 30명 내외 1개 반으로 운영되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화성시는 이번 교육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 방식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하반기에도 전문경영인 육성과정을 개설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 “대한민국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 도약 시작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3월 21일 신텍스에서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시민의 날로,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최경식 남원시장, 중국 연청시 정부 옌옌 부비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시

민들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에서 “화성특례시는 105만 시민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도시”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완성하는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터.삶터.쉼터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념식은 국립경찰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시민헌장 낭

독 ▲특례시 출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화성특례시 출범 기념 영상 및 남산서울타워 점등식 영상 상영 ▲정명근 시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빛나는 별빛 화성’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는 뮤지컬 ‘애니’의 대표곡 ‘Tomorrow’, ‘맘마미아’ 메들리, 성악가 이남현의 ‘You Raise Me Up’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조용필의 꿈’과

영화 ‘국가대표’ OST ‘Butterfly’를 함께 부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저녁 7시에는 동탄 여울공원에서 특례시민의 날 축하콘서트가 열려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자우림, 이무진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화성특례시를 응원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1인가구 사업으로 행복한 화성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1인가구 지원사업 중 3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9일 다원이음터 창작8에서 1인가구지원사업 금융안전 교육 2차 ‘연말정산, 이제 나도 좀 돌려받자’를 진행했다.

경기도 거주 1인가구 15명이 참석해 1인가구 맞춤형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문의 : 070-8831-8621

지난 31일에는 1인가구 지원 세대별 집단상담 2차 ‘웃음으로 여는 활기찬 인생’을 유엔아이센터 6강의실에서 진행했다. 경기도 거주 노년 1인가구 10명이

참여했으며 웃음습관만들기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070-8831-8621

화성시가족센터는 또 지난 29일 1인가구지원사업 ‘식생활 개선다이닝 홀로만찬 한그릇 음식만들기-연어구이덮밥만들기’를 진행했다. 다원이음터 요리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 거주 1인가구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인가구 간단 한그릇 음식만들기 ‘연어구이 덮밥만들기’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070-8831-8621

수도권 저점 도시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도 내실을 더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 새 학기 건강을 지키자!
홍역·수두 등 예방수칙 준수당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 여행 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월 6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학과 함께 학교 및 학원 등 집단시설에서 수두와 독감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집단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수두는 발열과 함께 물집 형태의 발진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성시는 홍역과 수두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발진 등 감염병 의심 유증상자는 등교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는 앞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호흡기 관련 감염병을 초기에 인지하고 집단 발생 예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the Seoul Archdiocese Migrant Pastoral Committee are carrying out the ‘Wings of Hope,’ a medical expense support project for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This project is a project to support medical expenses for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who are at risk of survival due to lack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It is to support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o receive timely medical support so that they can grow up and live healthily.

The support target is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under the age of 6 who are not enrolled in school. Up to 5 million won for emergency and severe medical expenses, up to 3 million won for childbirth-related medical expenses, up to 1 million won for minor medical expenses, and up to 300,000 won for essential vaccinations. However, for

emergency and severe cases, the support amount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the case.

This year,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December, but the project will run for three years until 2027.

Individuals cannot apply, but can apply at any institution nationwide that can manage cases. For this project, the Seoul Archdiocese Migrant Pastoral Committee signed a business agreement (MOU) with 15 diocesan migrant pastoral committees nationwide in February.

Each diocese's immigration ministry committee that signed the agreement plans to systematically connect immigrants who wish to apply to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medical hospitals and immigrant shelters and provide guidance on how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f applications are received through the organizations, the Seoul Archdiocese's immigration

ministry committee will hold a review committee meeting at the beginning of each month, select support recipients, and then send medical expenses to the medical hospitals.

Father Sang-hyeok Yoo, chairman of the Seoul Migrant Pastoral Committee, said about the background of the project,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are often not protected from social and physical violence and crime, not to ment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y often do not receive appropriate medical benefits.” He added, “This project aims to thoroughly protect the ‘lives’ of these children, and si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spirits of the church is the protection of life, the need for this project is great.”

Inquiry 02-953-0468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support project 'Wings of Hope'

〈한글 기사 23면〉

파과야스토리